

# 리아호나



# 리아호나



### 표지

앞: 사진 촬영: 윌트 시 앤더슨, 뒤: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윌트 시 앤더슨, 니파이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베나민 왕게머리 열 캅 그림)



친구들란 표지  
사진 촬영: 존 루크

###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진리의 기본 원리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10 봉사하는 것을 배움 엘 톰 페리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덕스러운 여성으로 생활함
- 32 말일성도의 소리: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물 스테파니아 포스티글리오네  
나는 듣기를 거부했다 이사벨 베리오스  
하나의 씨앗에서 렉스 유진 쿠퍼  
내 친구 "밀크셰이크" 로버트 리 "로키" 크로크렐
- 40 과테말라: 미래를 위해 건설함 돈 엘 설
- 48 2002년 5월호 리아호나 활용하기

### 청소년란

- 9 축복을 받음 안헬 아브레아 장로
- 20 덴마크에 우뚝 선 신앙 로리 리브시
- 26 나를 인도해 준 자전거 브레이크 레이브널 피 솔로몬
- 28 삶이 고될지라도 존 비 딕슨 장로
- 38 리아호나 고전: 영원한 친구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 47 알고 계십니까?

### 친구들란

- 2 예언자와 사도께서 주신 말씀: 배에 머물러 있어라  
러셀 엠 넬슨 장로
- 4 함께 나누는 시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비키 에프 마꾸오리
- 6 한 번만 더 테레사 위버
- 9 신약 성서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 변형
- 14 친구가 친구에게: 로버트 제이 웨튼 장로
- 16 심심풀이: 성구 상자 스코트 서드베리



2쪽 참조



10쪽 참조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심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뮌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말린 에이치 옥스, 앨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크트, 로버트 디 해밀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말린 케이 젠슨

고문: 제이 캔트 즐리, 너블류 플쓰 커, 스티븐 에이 웨스트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홉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데이일리

출판 보조: 코니 세익스피어

편집 보조: 레너 제이 커터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엘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킷트 벤 캠펠

산림 디자이너: 새리 쿡

디자이너: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엘 피터스

생산: 레자널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테니즈 커비, 켈리 프랫,

로널드 에프 스키르스, 캐리 에이 로드, 클라우디아 이 와이

디자인 교정 인쇄: 제프 머틴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안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 434호, 제 39권, 제 5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리-3166

발행일: 2002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정동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운반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 및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베트남어,

벨라루시아어, 시리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카리비시아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2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May 2002 No.5.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가족과 복음을 나눔

저는 리아호나 2001년 2월호(스페인어 판)에 실린 "아빠와 복음을 나눔"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읽고 감동 받았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감정이 북받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그 필자의 부친이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며, 만일 제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침례 받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저는 우리 가족이 진리의 길을 찾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나우파리 아구이레,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부,  
발렌시아 제1 지부

커 가는 간증

침례를 받았을 때, 저는 교회의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강한 간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금식하고 기도한 끝에 작은 간증을 갖게 되었지만, 조금은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리아호나 2001년 1월호에서 대관장단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의 "커가는 간증"이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은 거기서 우리의 간증은 계속해서 자라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간증은 매일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말일성도가 된 것과 저의 간증이 커가는 것에 감사하며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길베르토 코르데로 카스트로,  
코스타리카 산호세 토요판 스테이크,  
코로나도 지부

즐겁게 읽는 리아호나

저는 독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리아호나를 읽는 일은 즐겁고, 한번 자리를 정하고 앉으면 오랫동안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오늘 리아호나스웨덴어 판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고 고심해 왔던 많은 질문들에 관한 답을 얻었습니다.

에릭 마트슨,  
스웨덴 스톡홀름 스테이크,  
외레브로 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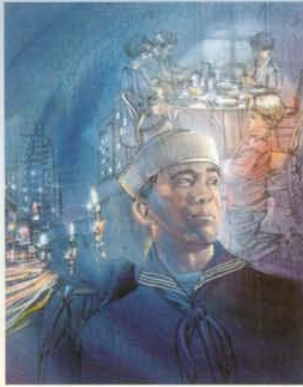


예언자의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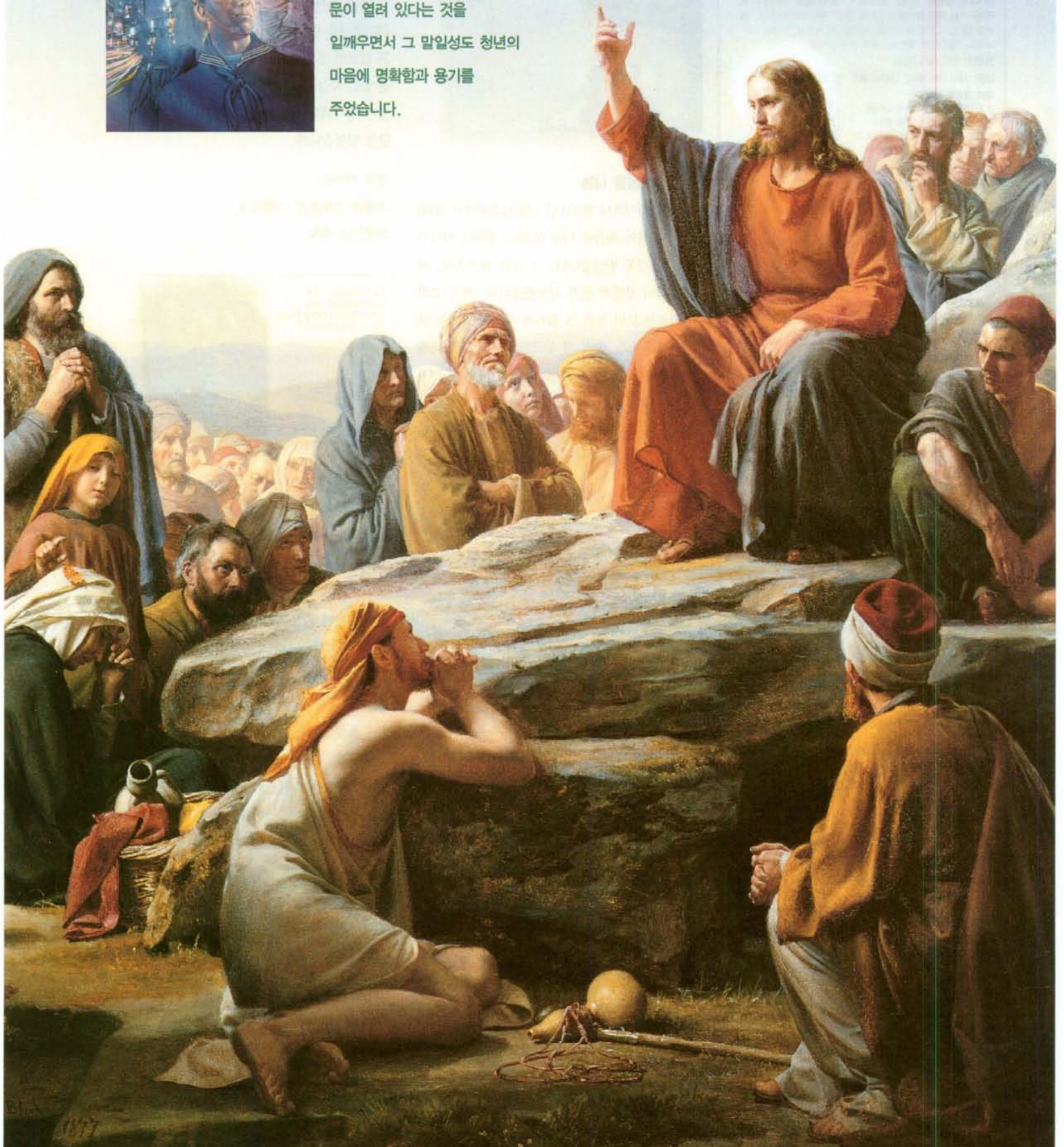
저는 리아호나 2001년 4월호(스페인어 판)를 받고 행복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쓰신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를 읽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귀와 눈썹에 많은 고리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부장님께 그 문제에 대해 여쭙 보았습니다. 지부장님은 그에 대한 답으로 제게 고린도 전서 3장 16~17절과 힝클리 대관장님의 기사를 보여 주셨습니다.

지도자들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교회 잡지에 나오는 그 분들의 말씀은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지도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니 예수 도리아 마르티네즈,  
콜롬비아 몬테리아 지방부,  
로리카 지부



마음속에 떠오른 그 모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동생과 그 가족의 기도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입깨우면서 그 말일성도 청년의  
마음에 명확함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 진리의 기본 원리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이따금 저의 학창 시절에 배운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그 시절에 배운 많은 것들이 참으로 유익했으며, 오랜 세월이 걸쳐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준 습관과 행동 방식들,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것들이 그러한

경험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시절에 배운 것들을 다시 평가해 보아야 했습니다. 다소 독단적으로 정립되어 있던 어떤 문제들은 이제 거의 잘못된 것이 되었습니다. “의학, 물리학 그리고 화학에서 일부 기준들이 바뀌었습니다. 정치 과학과 법학에서도 견해가 바뀌었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표준도 변했습니다. 교육계에도 전반적인 변화와 수정이 있었습니다. — 하나님 의 영원한 진리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그랬습니다.

오랜 세기 전, 금년에 우리가 공부하는 구약 성서 시대에 살았던 한 위대한 예언자는 제가 앞에서 설명한 상황에 잘 들어맞는 권고를 해주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이사야 40:8)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 삶을 그 표준에 부합시킨다면, 온 생애 동안 우리를 지키고 받쳐 줄 영원한 진리의 기본 원리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원리들은 각각 하나의 말씀 주제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본 위대하고, 훌륭하고, 영감을 주는 약속 중에, 가장 위안이 되

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세주의 약속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태복음 7:7)

군복무중이던 한 말일성도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부대에서 유일한 말일성도였던 그는 곧 동료들로부터 괴롭힘과 조롱에 시달려 결심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달림을 견딜 수 없게 되자, 그는 마침내 회원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일을 하러 시내로 가는 동료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내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집 부엌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 아버지, 어머니, 두 여동생, 그리고 어린 남동생이 보였습니다. 어린 남동생이 하나님 아버지께 군대에 있는 형을 돌보아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그 모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무리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 어린 동생과 그 가족의 기도가 그 청년의 마음에 명확함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다.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실제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진리의 창시자이며,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손잡이가 준비되어 있으며, 그분의 풍성함에 이르는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 하나님께 구하라”(야고보서 1:5)

삶은 영원합니다. 거의 70년 전, 7월 어느 날 밤, 젊은 선교



가족은 신성합니다.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제정된 것입니다. 가족 관계는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신성한 관계입니다. 오직 가족이란 조직을 통해서만 주님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습니다.



사로 봉사하던 중, 저는 영국의 윈더메어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워드워즈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호수를 바라보던 눈길을 하늘로 옮길 때, 오래 전 그곳에서 지어진 시구가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출생은 수면 그리고 망각  
우리와 함께 뜨는  
인생의 별인 영혼은  
어디에선가 졌다가 먼 곳에서  
오는 것  
완전한 망각도 아니며  
완전한 별거승이도 아닌 채로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다.

(William Wordsworth, "Ode on Intimations of Immortality")

우리는 무질서한 우주 안에서 우연히 창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살았으며, 기뻐 소리쳤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었습니다.(욥기 38:7 참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세의 삶을 졸업하고, 이 생의 삶으로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문장은 간결하지만, 그 의미는 심오합니다. 삶이란 우연히 점화되었

다가 불어오는 돌풍에 끼쳐 버리는 흔들리는 촛불이 아니라, 하나의 사명입니다.

창세기와 모세서와 아브라함서에 나오는 그 놀라운 기사들을 다시 읽어 보고, 우리가 이 필멸의 시험을 받기 위해 지상에 오기 전에 있었던 위대한 질서와 계획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성취해야 할 배움과 행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유산인 신성한 엔다우먼트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영원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지식의 축적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업 활동, 구애와 결혼, 가족을 부양하는 일 등에서 매일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지을 재료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살아가는 우리의 나날이 얼마나 더 만족스럽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매일의 삶을 영위하십시오. 여러분은 참으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 의해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인도되는 왕국, 곧 지상에 세워진 가장 위대한 왕국의 시민입니다. 이 왕국은 실재합니다. 그 운명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왕국은 예언자 다니엘이 말했던 왕국, 곧 손대지 아니한 채 산에서 뜨여 굴러 퍼져 온 세상을 가득 메울 돌입니다.(다니엘

2:34~35 참조)

필멸의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왕국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 왕국은 신성한 근원에서 오는 계시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19세기에 시작된 이후 이 왕국은 구르는 눈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커틀랜드 성전 헌납 기도에 언급된 예언적인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기도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1805~1844)는 주님께 다음과 같이 간구했습니다. “당신의 교회가 흑암의 광야로부터 나와서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를 세운 군대 같이 두렵게 하옵소서 ... 당신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차게 하옵소서.” (교리와 성약 109:73~74)

이 위대한 왕국에서 신권을 지닌 형제 여러분, 우정과 좋은 친구를 찾는 데 교회의 정원회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각 정원회의 회원은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성임되었으며, 서로를 돕는 데 헌신적이고, 그 역원들은 신성한 권능 아래 이 목적을 위해 성별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원회보다 더 나은 단체를 세상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형제 여러분, 교회의 정원회는 여러분의 재능과, 충실함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 의 왕국에서 정원회 활동을 통해 오는 우정과 축복을 필요로 합니다.

자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모토를 갖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들고 외로운 자의 상처를 싸매고 교회 여성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오며, 가정 주부로서의 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상호부조회보다 더 나은 단체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폭풍 속에서 닻이 됩니다. 왕국은 여기 있습니다. 진리에 매달리십시오.

가족은 신성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저활동 회원으로 있다가 다시 교회에서 활동화된 어떤 사람이 한 말을 기억합니다.

그 전 주에 그는 성전에 갔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란 말은 결혼 의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혼 증서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그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세상의 법 아래 이루어지는 결혼식은 결혼으로 맺어지는 동시에 헤어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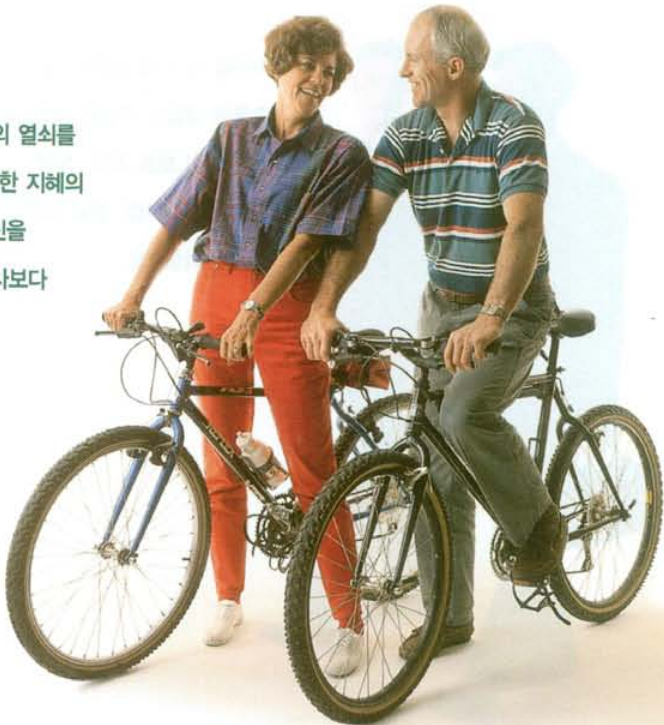
하지만 가족은 신성합니다.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제정된 것입니다. 가족 관계는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신성한 관계입니다. 오직 가족이란 조직을 통해서만 주님의 목적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창세 이전부터 제정된 ... 축복(인) ... 새롭고도 영원한 서약”(교리와 성약 132:4~5) 안에서 영원한 결혼으로 인봉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단 이 축복을 받게 되면, 죽음이 그 결혼을 갈라 놓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세상에서 오직 두 가지 힘만이 그 결합을 약화시키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곧 죄와 무관



**주님께서는 건강과 행복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지혜의 기둥입니다. 순종이,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드리는 제사보다 낫습니다.**



십입니다.

대부분의 결혼에서 자녀들이 생겨나며, 대부분의 부모는 진정으로 자녀를 의롭게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복음의 놀라운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가족 생활 프로그램보다 더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저는 만족합니다.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의 신권을 부여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돌보는 청지기로서 그들의 필요 사항을 공급하는 것이 그의 특권이자 의무이며, 가정에서 신권의 영을 지니고,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교리와 성약 121:41) 다스리며,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을 지닐 수 있는 예지와 헌신과 사랑의 영을 지닌, 하나님의 딸인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한 청지기로서 자녀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들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그녀의 특권이자 의무이며, 남편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녀들에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 이해하며 ...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

을”(교리와 성약 68:25, 28) 가르치는 것이 그러한 가족 프로그램입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부모들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며,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고마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돌보고 양육하며, 격려하고, 인도해야 할 주님의 선물로 생각될 것입니다.

이따금 실망할 때도 있으며, 작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기도와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을 영원히 결속하는 애정과, 언제나 가족을 바르게 인도하는 충실함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글의 출처를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인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는 권고에서 온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사무엘상 15:22) 저는 건강에 관한 주님의 권고와 약속인 지혜의 말씀과 (교리와 성약 89편 참조) 연관지어 이 위대한 진리의 한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의료 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지 않았을 경우보다 7년 일찍 사망한다고 합니다. 인생에서의 7년이란! 그 기간이면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칩니다. 7년이라면 박사나 건축사, 공학사, 변호사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 7년 동안 일출과 일몰, 산과 계곡, 호수와 바다, 자녀들의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과의 우정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멸망의 천사가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입증해 주는 참으로 훌륭한 통계 자료입니다.(21절 참조)

또다른 약속도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도”(19절)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들었던 한 주일학교 교사의 경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어느 일요일 지혜의 말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지식의 감추어진 보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교사는 당황하여 더듬거리며 할 말을 찾다가 마침 종이 울려 그 순간을 모면했습니다. 그는 반원들에게 다음 일요일에 그 주제에 대해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잊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대업인 주님의 대업, 곧  
정원회 및 보조 조직, 성전  
사업, 복지 사업, 선교 사업에  
참여하십시오.



주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여러분의 십일조를 바치십시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밖에  
없으니”(교리와 성약 82:10)



주 중에 그는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지만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말이 가까워진 어느 날, 그는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 동료는 한 번은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말일성도 교회 건물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들어가서 말일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예배가 참으로 특이했는데, 회중 가운데서 사람들이 차례로 일어나 자신들의 경험을 말하고, 감사를 표하고,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들이며, 살아 계신 구속주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간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날 오후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참으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감추어진 지식들을 갖고 있구나 하고 혼자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잠시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건강과 행복의 열쇠를 주셨으며, 그와 함께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지혜의 기둥입니다. 순종이,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드리는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이해하기로는, 세 가지 큰 욕망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1) 사랑하고 사랑 받기, (2) 자신을 알아주는 좋은 친구를 갖는 일, 그리고 (3) 성공, 다시 말해 상당한 번영을 이루고 누리는 것입니다.

대관장단의 스티븐 엘 리차드 부대관장(1879~1959)은, 조

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1838~1918)의 말씀을 제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파웨스트의 암흑기에 태어나, 나부에서의 비극적인 시기에 아버지를 잃었고, 가난의 의미를 몸소 체험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분이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가난과 비참함과 불안정 속에서 영원히 살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이 정당하게 지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의도하셨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이 교회의 회원이며 회원이 되기 위해 성약을 맺은 사람은 주님의 왕국에서 자신이 담당해야 할 의무를 기꺼이 행하지 않는 한, 자신의 노력에 대해 주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구약의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 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말라기 3:10~11)

주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여러분의 십일조를 바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후하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찾아갈 어떠한 투자 상담자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약속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10)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성약을 존중하십니다.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입니다.** 1933년, 선교 사업을 하러 떠나던 해에 저는 시카고를 경유하여 여행했습니다. 경제가 대공황에 빠져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시카고 무역협회 건물을 지날 때, 한 여인이 버스 운전사에게 “저 건물은 뭐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역협회 건물입니다. 곤두박질친 증권을 소유한 주주들이, 거의 매일같이, 저기 보이는 창문들을 통해 뛰어내립니다.”

버스 운전사가 과장해서 말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당시에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실제로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기 자신들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돈에 묶여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진다면 살아야 할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웬델 필립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한두 명이 자신을 잊고 불멸의 세계로 들어서지만, 너무나도 약삭빠른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는 무덤으로 기어들어 간다.” (quoted in John Wesley Hill, *Abraham Lincoln—Man of God* [1927], 146쪽)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39)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저는 한 잡지를 골라 세상이 현재 빠져들고 있는 도덕적인 멸망에 대해 설명해 놓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부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내가 얻는 것이 뭔데?” 라는 질문으로 특징지어지는 태도를 들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

러분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잊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대업인 주님의 대업, 곧 정원회 및 보조 조직, 성전 사업, 복지 사업, 선교 사업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축복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러한 진리의 기본 원리들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들은 하나하나 모두 세대를 거친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승인된 영원한 진리입니다.

1.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2. 삶은 영원합니다.
3.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4. 가족은 신성합니다.
5. 순종은 희생보다 낫습니다.
6.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7. 자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진리 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 평강”(빌립보서 4:7)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하나님은 실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오직 기도를 통해 그분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2. 우리는 무질서한 우주 안에서 우연히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으며,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셨습니다.
3. 우리는 지상에 세워진 가장 위대한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시민입니다. 활동적인 교회의 회원 자격은 인생의 어려움 안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4.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제정된 것입니다. 오직 가족을 통해서만 주님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습니다.
5. 순종이,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드리는 제사보다 낫습니다.
6. 주님께서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후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7. 주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을 잊음으로써, 우리의 삶은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 축복을 받음

안헬 아브레아 장로  
철심인 정원희



한 여행자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올해 목화 수확은 어떻습니까?”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별레가 귀찮아서 재배를 안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옥수수는 많이 거두시겠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비가 안 올까 봐 안 심었어요.” 하고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여행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감자 수확은 좋겠군요.”

“아니오, 해충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심지 않았소.”

다소 낙심한 여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심었나요?”

“아무것도 심지 않았습니다. 근심하는 것보다는 편안한 것이 낫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날 그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만 그것을 가슴에 심고 생활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것이 참된 것인지 알아보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생을 살아가면서 예언자와 경전의 말씀을 듣고 따르거나, 아니면, 이러한 원리들을 일상 생활에 적용하기를 두려워하는 방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아는 지식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야고보서 1:22)는 자가 되지 않는 데서 옵니다. 그러한 지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교리와 성약 84:44) 가려고 애쓰는 노력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상 생활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가장 높으신 이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의 축복은 그것이 근거를 둔 율법에 순종할 때 오는 열매입니다. □

1988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총관리 역원들이 상당한 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낸다는 사실은 교회 회원들에게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제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스테이크 센터들이 여러 나라에 산재해 있습니다.

한번은 여행을 하던 중에 한 비행기 조종사와 함께 만일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듣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

계, 기타 제한적인 요인들로 인해 항로로 복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해진 항로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조종사와의 대화에서 안도감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항로 계획이란 우리 인생 행로를 위해 방향을 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필멸의 세계에서 위대한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로를 정하고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는 그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볼 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정하는 일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 그

# 봉사하는 것을

었습니다.

그는 비행기가 항로에서 1도를 비껴 갈 때마다 매 60마일(97킬로미터)당 1마일(1.6킬로미터)씩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곧 솔트레이크에서 덴버로 갔을 때, 비행기는 공항이 아닌 덴버 시내에 착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트레이크에서 시카코로 가는 비행이라면, 공항이 아니라 미시간 호수에 착륙하게 될 것입니다. 솔트레이크에서 뉴욕으로 간다면, 케네디 공항이 아니라 허드슨 강에 착륙하게 될 것입니다. 런던으로 간다면, 영국에 도착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프랑스 어느 곳에 착륙하게 될 것입니다.

항로에서 몇 도 벗어나면 완전히 다른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조종사는 제게 그러한 잘못을 빨리 발견할수록 계획된 항로로 되돌아가기가 쉽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항로 수정을 미룬다면, 비행기 통행이나 열악한 기상 상태, 악화된 시

길을 표시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 이라”(마태복음 7:13~14)

되풀이하여 경전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갖던 날 밤, 제자들에게 사랑이 담긴 작별을 고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한복음

14:2~3)

그 때 사도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5절)

구세주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6절)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면전으로 인도할 길을 표시하셨습니다. 그 길이 것처럼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면, 어찌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벗어난 자신들의 행로를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이 희망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도록 내버려둬니까?

승영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삶으로 가는 길에는 온갖 종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짧고, 때로는 긴 시련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유혹은 커브길이나, 갈림길, 또는 교차로에 숨어 있습니다. 유혹에 굴복하여 길에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굳건히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문경은 우리에게 리하이가 본 생명 나무의 시현에 대해 말

# 배움



**복음 지식은 봉사와 나눔에서만  
찾을 수 있는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해 줍니다. 쇠막대를 잡음으로써, 사람들은 나무에 이르러 다른 모든 과일보다도 달고 가장 탐스러운 과일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리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 보니, 강물 건너 편에 크고 넓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땅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니라.

“그 건물 안에는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들로 꽉 차 있었으며 저들의 옷차림은 값진 것이었더라. 저들은 마치 강 이편에 이르러 열매를 따먹는 자들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현상이더라.

“열매를 따먹는 자들이 저들을 조롱하는 자들로 인하여 열매를 따먹은 다음 부끄러워 하며, 금단의 길로 떨어져 들어가더라. 부친이 이렇게 말씀하시니라.”(니파이일서 8:26~28)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바란다면, 소위 친구라는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웃음을 무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도와 예언자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보다 편하고 보다 즐거운 길을 따르라는 제안을 무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나 니파이는 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도록 권고하였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고, 빗사에 주님의 계명 지키기를 기억하도록,

나의 모든 심령의 기력과 내가 지닌 온 힘을 다하여 권고하였느니라.”(니파이일서 1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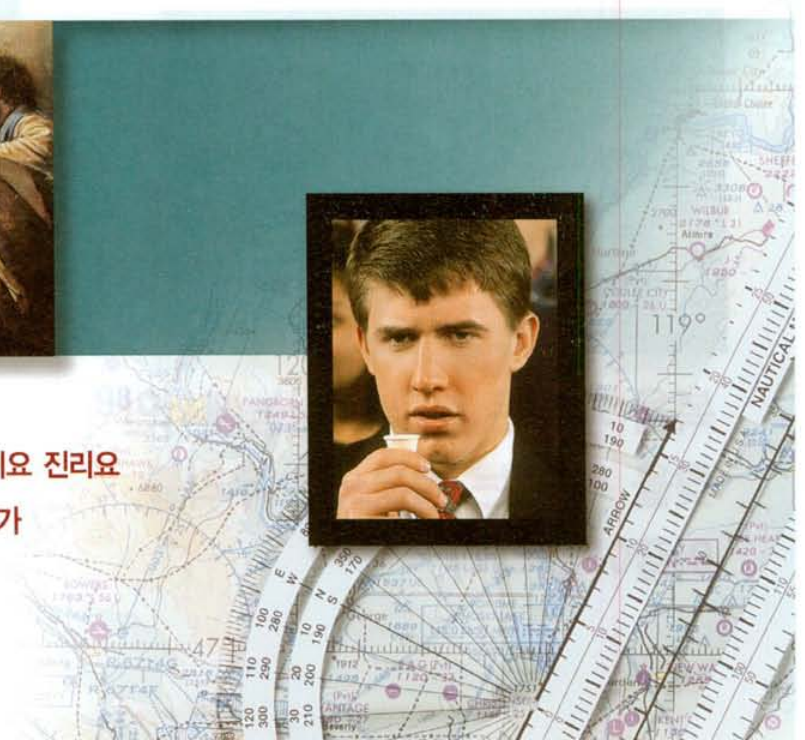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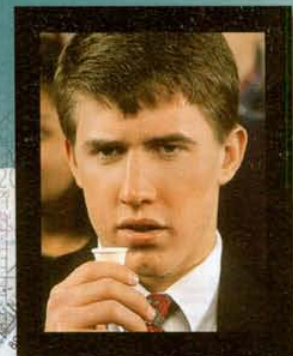
영생으로 가는 길에 세워진 하나의 이정표는 브리감 영 대학 정문에, 눈에 띄게 새겨진 다음과 같은 문구입니다. “들어라 배우라. 나아가 봉사하라.” 길에 머물러 있으려면, 우리는 따라가야 할 좁고 곧은 길에 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시대에 걸쳐 예언자들에게 인생의 계획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제12대 대관장인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대관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내자로 삼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될 사건과 상황들을 맞추어볼 수 있는 이해의 틀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경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현 경륜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사는 이 시기에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우리 시대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얻지는 못하지만,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에게, 세상에 평화가 없을 경우이라도, 우리 영혼에 평온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오는 개인적인 평화를 갖는 방법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인생의 길을 앞서 간 사람들이 ‘좁고 곧은’ 길



**영생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구세주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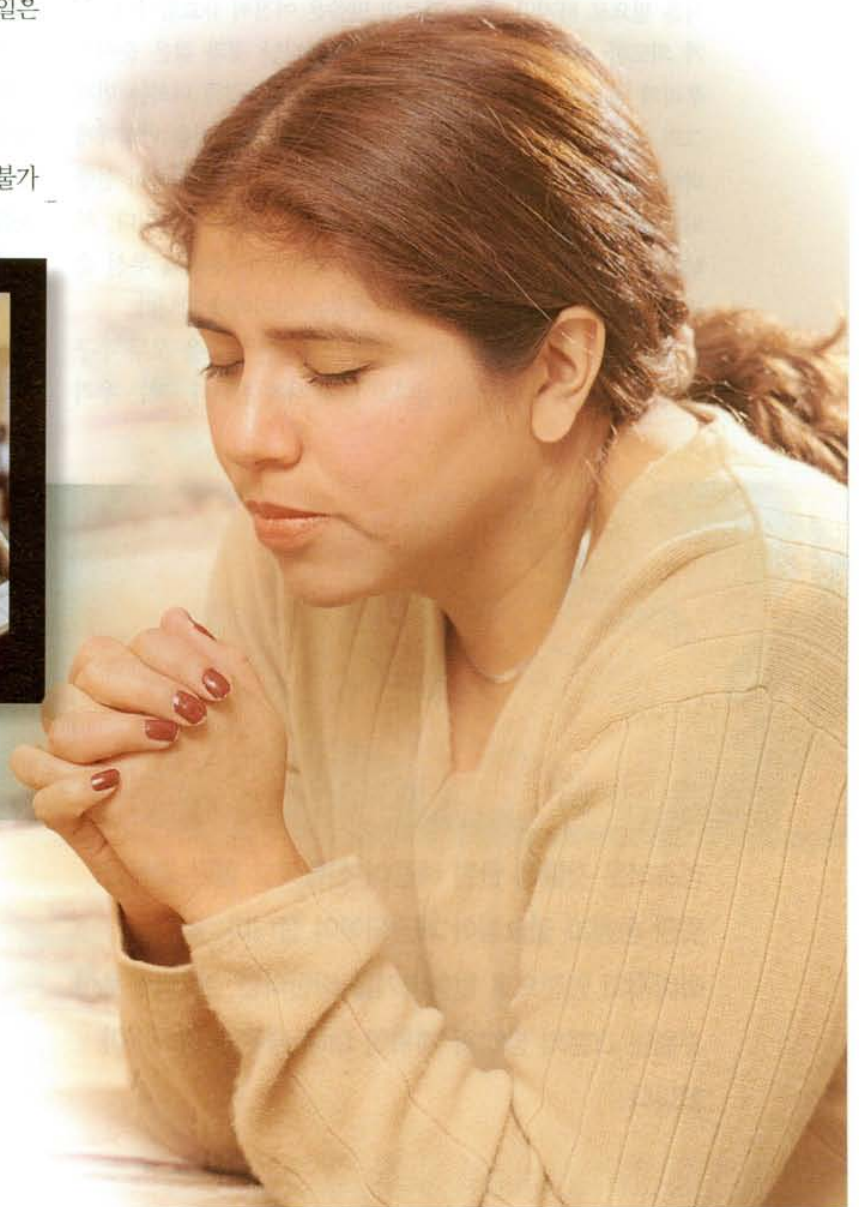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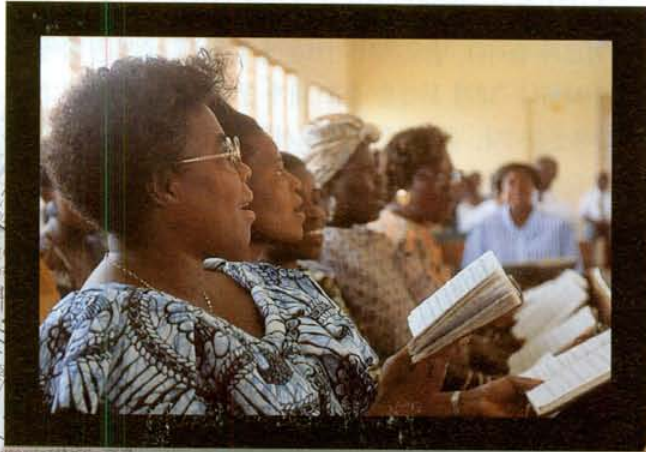
에 머물러 있어야 함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일에 익숙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여러분에게 같은 것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지만, 왜 그러는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그 좁은 길 양 옆에 있는 벼랑이 결코 변하거나 덜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의 가파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President Kimball Speaks Out [1981], 89쪽)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많은 젊은이들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후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인생 여로를 시작합니다. 도로 지도도 없이 길을 나서기 때문에 그들이 길을 가면서 찾게 되는 것은 오직 실망 뿐이란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나가서 봉사하기 전에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길에 관해 먼저 배우십시오.**

경전은 우리에게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 받는 일이 불가

능하다고 말해 줍니다.(교리와 성약 131:6 참조) 이 원리는 대단히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존 에이 윗소(1872~1952)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지식이 있다. 어떤 것은 낮은 가치를 갖고 있으며, 어떤 것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요셉 스미스는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 받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는 다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에 대한 무지에 관해 말했을 뿐이다. 그러한 지식이야말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지식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한다. 그런 다음 영적인 율법에 관한 보다 직접적인 지식을 지지하고 넓히기 위해 다른



종류의 지식이 추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증기선, 인쇄기, 그 외에 우리 문명을 이루는 수많은 다른 것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복음에 관한 지식은 선교사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지식이며, 다른 필수적인 것들은, 그보다 가치는 적지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시를 보다 잘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Evidences and Reconciliations, arranged by G. Homer Durham [1987], 224쪽)

물론,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컴퓨터, 위성 통신 등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윌소 장로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가 의도한 것은 구세주의 가르침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순서가 우리의 배움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 성스러운 것들에 관한 배움이 선행되고 일반 교육을 위한 환경과 필요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우선 순위는 그분의 방법과 계획에 대해 배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여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배움을 모두 추구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저는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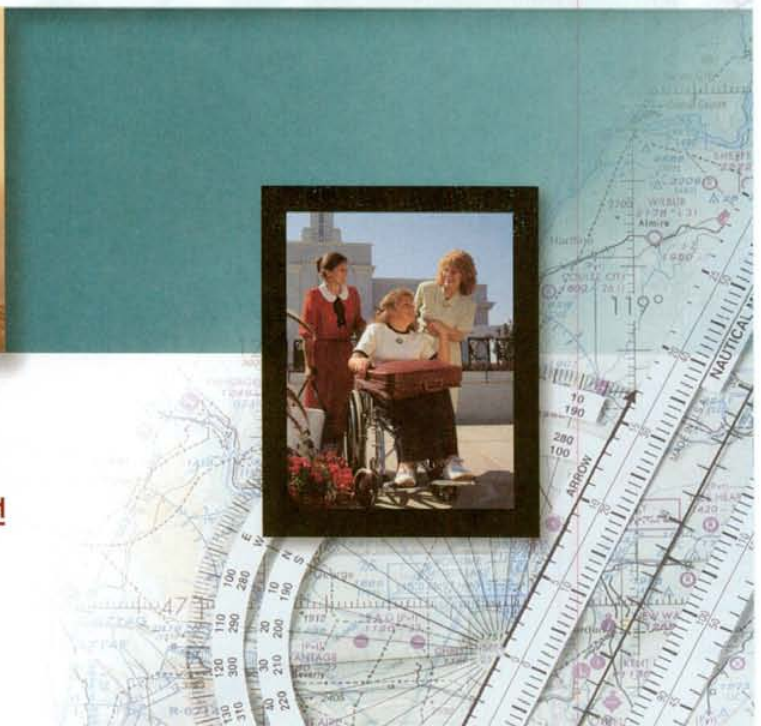
가 이러한 인간의 철학에 속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신성한 것들에 관한 우리의 배움은 세상적인 배움을 촉진하며, 심지어 가속화하게 합니다. 제3대 대관장인 존 테일러(1808~87) 대관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세속적인 가설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인간은 철학과 선천적인 예지의 훈련을 통해 자연의 법칙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하늘의 지혜와 예지가 필요하다. 지상과 하늘의 철학은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다. 지상의 철학을 사용하여 하나님 왕국의 신비를 풀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The Gospel Kingdom, selected by G. Homer Durham [1987], 73쪽)

영적인 기반 위에서 세속적인 배움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보다 잘 이해할 뿐 아니라, 예술이나 언어, 기술, 의학, 법 및 인간 행동에 관해 그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의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눈을 통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께 이해를 간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을 때, 주님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네게 무엇을 줄꼬 내게 구하라”(열왕기상 3:5)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새로운 책임에 대한 중



**성스러운 것들에 관한 배움이 선행되고 일반 교육을 위한 환경과 필요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우선 순위는 그분의 방법과 계획에 대해 배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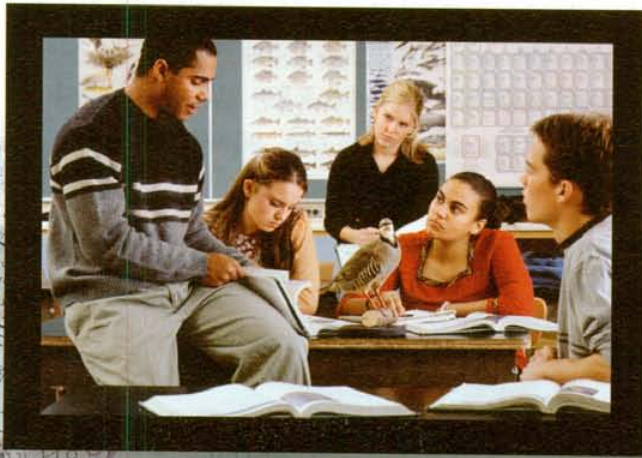
압감과 준비되지 않았다는 느낌 때문에 “중은 어린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7절)한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주님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9절) 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11~12절)

참 마음과 참 뜻을 가지고 구한다면 기꺼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주님의 권세와, 축복해 주시려는 마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세계의 교육 심리학자들이 아직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교육 계획과 학습 이론들을 갖고 계십니다.

필멸의 삶이라는 은사는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배우는 데 비교적 짧은 기간인 반면에, 우리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배우고, 세속적인 지식들을 배울 영원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김볼 대관장은 우리에게 승영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세상적인 것들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무한한 시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배웁니다. 승영이란 신이 되는 것, 곧 창조자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분이셨으며,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Eliza R. Snow Smith, *Biography of Lorenzo Snow*, [Salt Lake City: Deseret News Co., 1884], 46쪽) 이 일은 미래의 일입니다. 존재하는 물질을 취하여 우리가 사는 지구와 같은 세계를 만들기에 앞서, 지질학, 동물학, 생리학, 심리학, 기타 모든 학문을 익혀야 하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짧은 필멸의 생애 동안 이 모든 지식을 얻고 이러한 모든 과학들을 터득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명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작할 수 있으며, 영적인 삶과 통제력과 숙달된 것을 기초로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받은 권능과 권세를 갖고, 거의 무한한 세상적인 지식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ited by Edward L. Kimball[1982], 53쪽)

그러므로 영적인 것들을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에 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낸 시간은 유익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학문을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우선적으로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배운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할 경우,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어진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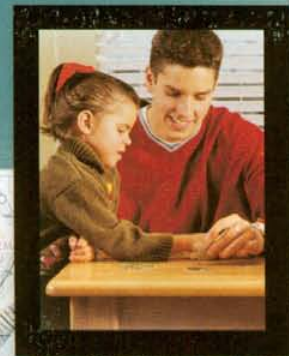
“이 필멸의 생은 하나님을 만나 보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것이 우리의 첫째 되는 책임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영이 거할 장막이 되는 육신을 이미 얻은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에 우선되는 것은 우리가 이 생을 이용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는 일, 즉 육신을 지배하고, 육체가 영에 복종케 하고, 모든 약점을 극복하고, 자아를 다스려 다른 사람에게 지도력을 보이고, 필요한 모든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

“... 영생에 이르는 길에 두 발을 굳건히 세운 후에야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

“... 고도로 훈련된 과학자로서 완전하게 된 사람이라면 세상을 창조하고 그 곳에 사람들이 살도록 하겠지만, 방탕하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토록 결코 그 같은 창조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비록 중요하기는 하나 결코 영혼을 구하거나 해의 왕국을 열거나 세상을 창조하거나 인간을 신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가운데 영생으로 가는 길을 찾고, 모든 지식을 도구와 종이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세상적인 지식은 매우 유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President Kimball Speaks Out*, 90~92쪽)

**베냐민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 하나님께 빛지고 있다는 느낌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진로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영생을 얻기 위한 길로 나아간 후에,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은 많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의미심장한 그 결과 중의 하나는 이 세상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빛을 졌다는 느낌입니다. 구원의 계획은 구속주의 필요성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역할을 수행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이사야와 베드로의 말처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 습니다.(이사야 53:5, 베드로전서 2:24 참조)

로마인들에게 서한을 보낼 때 사도 바울은 이 빛진 느낌을 깊이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로마

서 12:1) 바울은 봉사의 근본적인 측면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축복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그분께서 위대한 행복의 계획, 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계획되고 실행된 계획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겪으시고, 피를 흘리셨으며, 돌아가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개념을 이해한 베나민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심 전력을 다하여 섬긴다 할지라도, 너희는 무익한 중에 불과한 것이니라.”(모사이야서 2:21)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을 어



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베냐민 왕은 백성들에게 주는 권고에서 그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모사이아서 2:17)

물론점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 참으로 많은 것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방정식, 즉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한 많은 사람들의 예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베냐민 왕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 훌륭한 모범을 보인 사람들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바르게 봉사하고자 나도 친히 내 수족으로 일하”(모사이아서 2:14)였다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왕은 구원의 계획에 관해 배울 것을 선택했으며, 그런 후에 나아가 봉사했습니다.

봉사의 영이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고 이해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를 보여 주는 더욱 극적인 예는 바로 엘마 이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엘마가 젊었을 때 모사이아 왕의 아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고자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는 그가 따라야 했던 길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엘마에게 나타나 그와 그의 형제들을 올바르게 훈계했습니다.

엘마가 느꼈을 놀라움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셨으되 이는 나의 교회라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이요, 내 백성이 범법하지 않을진대 아무도 이를 허물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니라.”(모사이아서 27:13)

엘마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문자 그대로, 병어리가 되었으며 손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에 의해 대제사장이었던 그의 부친 엘마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제사들이 모여, 엘마를 위해 이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의 입이 열리고 다시 힘을 얻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 드린 그들의 간청은 응답되었으며 엘마 이세는 그들 앞에 변화된 사람으로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영혼은 쓴 잔에서 구함을 얻으며 죄의 사슬에서 속죄되었다. 내가 지극히 암담한 심연에 거하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을 보았고, 나의 영혼이 영원한 고난으로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이제 구제되어 나의 영혼이 괴로움을 모르노라.

“내가 나의 구속주를 거절하고



**봉사의 영이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고 이해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를 보여 주는 더욱 극적인 예는 바로 엘마 이세의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셨으되 이는 나의 교회라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이요, 아무도 이를 허물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니라.”**



우리 조상들이 전한 말씀을 부인하였으나, 저들이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음을 이제 내가 일며, 주는 스스로 지으신 만물을 기억하시며 친히 만민 앞에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조상들이 알고 있었음을 내가 아노니”(모사이야서 27:29~30)

엘마에게 그것은 고통스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말로 표현 못할 고통과 영원한 괴로움을 겪었으나, 다시 올바른 길에 놓였습니다. 다음에 기록된 경전 구절들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때로부터 엘마가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천사가 나타나났을 때 엘마와 함께 했던 자들은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저들이 보고들은 바를 선포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으며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하였느니라. ...

“이들은 제이라헤블라 땅과 모사이야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 가운데로 두루 다니면서, 저들이 교회를 아프게 했던 욕됨을 씻으려 지은 죄를 고백하며 저들이 본 모두를 선포하며 듣기 원하는 자에게 모든 예언과 경전의 말씀을 설명하였느니라.

“이같이 저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와 저들의 구속자를 가르쳤으니”(모사이야서 27:32, 35~36)

개종한 후에 찾아온 책임과 의무는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엘마의 삶은 변화되었고, 그는 이 지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구속의 계획을 권세와 직접적인 지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는 천사를 통해서 배웠으며, 그런 후에 나아가 봉사했습니다.

엘마가 성역 말기에 적은 글을 읽게 되면, 그가 얼마나 강도 높게 진리로 개심했는가와, 그로 인해 생긴,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오 내가 천사되어, 내 마음의 원대로 앞에 나아가 주의 나팔로 땅이 흔들릴 음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천둥 같은 목소리로 회개와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이 땅 위에 다시는 슬픔이 깃들지 않게 할 수 있으려면”(엘마서 29:1~2)

엘마는 구원의 계획과 주님을 위한 봉사에 대한 이해가, 신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의해 제약 받는다고 느낄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비록 자신의 간청이 불합리하다고 느꼈지만, 그는 더 많이 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천사의 음성으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 크게 빚졌다는 생각에, 그는 주님께 드리는 봉사에 자신이 가진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희생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우선주의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높게 생각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기심이 결코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부분은 봉사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분명 인생에서 영혼을 만족시키는 기쁨은 사랑과 봉사의 유산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부친인 브라이언트 에스 힝클리는 봉사에 관해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봉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 되는 덕이며, 그들은 그로 인해 기억될 것입니다. 봉사는 실천하는 사람에게 고귀함을 선사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두 부류, 곧 돕는 자와 방해하는 자, 들어올리는 자와 기대는 자, 기여하는 자와 오직 소비하는 지로 나누는 경계선이 됩니다. 주는 짓은 받는 것보다 얼마나 더 훌륭합니까. 봉사는 어떤 형태로든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격려하고, 연민하고, 관심을 보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감을 키워 주고 희망을 일깨운다면, 간단히 말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인다면, 그것은 가장 고귀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quoted in Steven R. Covey and others, *First Things First* [1994], 306쪽; punctuation modified)

배우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나아가 봉사하는 것은 필멸의 존재인 우리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행위가 그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신속한 궤도 수정을 통해 올바른 길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직접 정하신, 영생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주는 유일한 목적지로 이끌어 가는 좁고 곧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매주, 매년 시간을 내어 확인해 봅시다. □

# 덴마크에

피아 헨트슨



레베카 페더슨

아벨리스 닐슨



# 우뚝 선 신앙

로리 리브시

사진 촬영: 글쓴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사는 청녀 세 명이 저마다 내용이 전혀 다른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피아는 자신의 개종 이야기를, 레베카는 그녀가 참여하고 있는 외설물 반대 프로그램에 대해 그리고 아넬리스는 새로운 예배당을 짓는 것을 정부가 승인해 주도록 간구하는 금식과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들 세 가지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들 모두가 덴마크에서 신앙으로 우뚝 선 교회 회원들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 피아 헨트슨

피아는 덴마크 코펜하겐 스테이크, 프레데릭스베르그 와드에 다니는 16세 된 월계반원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평생 교회에 다니신 분이요 피아는 어릴 적에 초등학교에 참석했던 일을 기억할 수 있지만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은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는다.

“엄마와 아빠가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침례는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피아는 말한다.

부모님이 이혼을 한 후에, 피아와 두 오빠, 그리고 어머니는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

피아는 여덟 살이 되었지만 침례를 받지 않았고, 열두 살이 되어서도 청녀반에 들어가지 않았다. 거의 10년 동안 그녀는 교회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가정 복음 교사가 여전히 방문을 했고 방문 교사들이 엄마를 찾아왔지만, 헨트슨 가족은 일요일에 집에 머물렀다.

그러던 중에 한 청녀 지도자가 피아에게 전화를 걸어 활동에 참석하라고 권유했다. “지의 지도자는 제게 편지를 보내 교회에 오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 보았지만 지루하다고 생각되어 다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교회에 대한 제 마음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말한다.

선교사들은 피아가 침례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시간을 내어 방문하기 시작했다. 첫번 약속 때에 그들은 짙은 영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몇 주 동안은 계속 그렇게 하더니, 어느 날 선교사들은 전혀 다른 것을 시도했다. 바로 모든 선교사들이 전달해야 하는 첫번째 토론이었다.

“그들이 제게 첫번째 토론을 가르쳐도 되겠냐고 묻기에 좋다고 했지요. 제가 모든 토론을 마치고 침례를 받기로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몇 주 정도 걸렸을 거예요.” 이 무렵 피아의 어머니도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두 오빠 또한 그랬다.



코펜하겐 중앙 역



코펜하겐의 선창가에서, 피아와 그녀의 엄마가 다시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었다. 그러나 봉투 속에 외설물 반대 인쇄물을 넣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루한 일이었다.

주소를 봉투에 적으며 그녀는 덴마크 내의 외설물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조직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외설물은 우리의 가치관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덴마크는 무척 개방된 나라라서 사람들이 외설물에 너무 젖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외설물에 익숙해지기보다는 외설물에 놀라야 합니다.”라고 레베카는 말한다.

레베카가 다니는 학교에서, 한 등급 학생이 외설물에 반대하는 항의를 시작하며 레베카를 돕기로 했다. 이들 학생들은 정부, 특히 국내 공영 방송을 관장하는 덴마크 문화부 장관에게 그들의 뜻을 전하는 탄원서를 내기 위해 서명 운동을 하는 중이다.

오늘날, 프레데릭스베르그 와드의 청남 청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작은 그룹에 속해 있는 피아는 편안함을 느낀다. 교회에 들어와 활동 회원이 되기까지 그녀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은 그것이 생활 방식이 되었다. “와드에서 월계반 반원은 저 혼자예요. 장미반원이 두 명, 꿀벌반원이 두 명 있어요. 그것이 우리 청년의 전부예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런 후에 그녀는 잠시 멈추어 교회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 “제 생활은 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되다고 알고 있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거든요.” 하고 그녀는 결론짓는다.

### 레베카 페더슨

우표를 붙여야 할 봉투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을 할 사람은 레베카 뿐이었다. 덴마크 코펜하겐 스테이크 알러르드 와드의 월계반원인 레베카는 외설물과 그 해악에 대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 그에 대해 무엇인가를 하려던 중이

레베카는 덴마크에서 외설물에 대항하기로 했다. “저는 외설물과 그 영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거나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외설물을 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린이 눈에 쉽게 띄는 공공 장소의 외설물들을 없애고 싶어요. 아이들을 일찍 잠재워 텔레비전을 통해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라고 레베카는 설명한다.

청녀 가치관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이 교회 회원으로 무엇을 대표하는가 하는 것을 숙고하면서 레베카는 자신이 뭔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일에 참여한 것을 기쁘게 여긴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의 사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특히 교회 회원인 우리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제게 언제나 중요하긴 했지만, 몇 달 전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고서, 제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하고 그녀는 말한다.

레베카의 그룹이 그 프로젝트를 끝내고 정부에 탄원서를 보냈을 때, 그녀는 2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탄원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데 했던 자신의 작은 역할과 그 프로젝트가 덴마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그녀의 각오를 어떻게 강화시켜 주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그룹이 목표로 했던 15,000명이 훨씬 넘는 서명을 쉽게 받았다.

레베카는 하루 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든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외설물과 그 영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거나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넬리스 닐슨

아넬리스는 3대째 교회 회원이다. 그녀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오래 전에 침례를 받았고, 아버지는 교회에서 성장하여 회원과 결혼하였고, 아넬리스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회원이 되었다. 그녀는 프레데릭스베르그 와드의 회원이며 꼴벌반원으로 피아와 함께 와드에서 몇 안 되는 청녀 가운데 한 사람이다.

현재는 와드 모임을 임대 건물에서 갖고 있다. 건물 엘리베이터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아넬리스는 계단을 이용한다. 3층까지 걸어서 예배당으로 들어간다. 건물은 깨끗하고 좋지만 아넬리스는 프레데릭스베르그 와드가 모이는 장소가 일시적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그녀는 창 밖을 내다보며 한 건물을 손으로 가리킨다.

“저기 있는 것이 옛날 예배당이에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는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이 나라에 교회가 최초로 세웠던, 한 아름다운 벽돌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 건물은 현재 특별한 이유로 비어 있다.

“거기에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하고 아넬리스는 설명한다.

코펜하겐에 세워질 성전은 덴마크와 기타 스칸디나비아의 다른 지역에 있는 회원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에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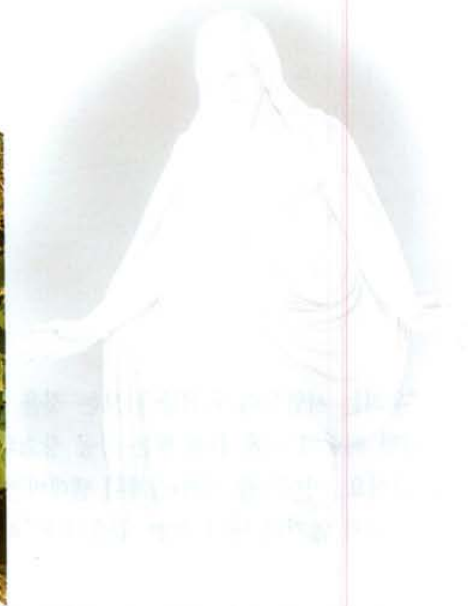


피아, 레베카 그리고 아넬리스는 오랜 복음 전통의 일부이다. 데니스 스미스가 조각한 크리스티나 동상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희생했던 19세기의 많은 덴마크 개종자들을 기념하고 있다.

코펜하겐 중심가



덴마크, 히러뢰드에 있는 프레데릭스베르그 성의 부지



프레데릭스베르그 와드의 회원들 —  
아넬리스, 크리스텔 페더슨, 아넬리스의  
언니 크리스텔 — 이 새로운 건물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를 드렸다.

시간씩 걸려 가는 대신에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성전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다. 아넬리스는 그것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예배당의 문제가 남아 있다. 임시로 임대한 건물의 임대 기간이 곧 만료된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에 프레데릭스베르그 와드는 매입해 놓은 부지에 정부가 건물을 짓도록 승인해 줄 것을 기원하는 금식 기도를 드리게 된다. 아넬리스는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다른 와드 회원들과 더불어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오늘 아침 아넬리스는 배가 고팠다는 것을 시인한다. “그러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더욱 겸손해지는 것을 느껴요. 저는 금식이 그렇게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일 이 와드의 모든 회원들이 같은 목적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도와 주시리라는 것을 믿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성찬식이 끝난 후에, 금식은 거의 끝났지만, 아넬리스는 식사 하러 서둘러 집에 가지 않는다. 그 대신, 96세 된 와드 회원인 크리스텔 페더슨 할머니의 팔을 잡고 문을 나선다. 페더슨 자매님은 1958년에 교회에 들어와 주일학교에서 아넬리스의 아버지를 가르쳤다. 매달 아넬리스는 페더슨 자매님을 좀더 알기 위해 시간을 내어 그녀를 방문한다.

아넬리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페더슨 자매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일이 즐거워요. 가족 가운데 유일한 교회 회원인 것을 보면 아주 굳센 분인 것 같아요. 남편은 결코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 자매님이 침례를 받았을 때 아이들은 이미 장성해 있었어요. 나이가 96세이신 데도 여전히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세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운 페더슨 자매님과 같은 분을 존경해요. 또한 금식과 같은 것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느껴요.”라고 아넬리스는 덧붙인다.

코펜하겐에는 덴마크의 조각가인 베르텔 토발슨이 조각한 유명한 동상, 예수 그리스도상이 서 있다. 바로 그 도시에 모든 일에서 구세주를 닮으려고 하는 말일성도들이 또한 우뚝 서 있다. □

편집자 주: 아넬리스와 다른 여러 사람들이 금식을 한 지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교회는 정부로부터 새로운 프레데릭스베르그 와드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

코펜하겐 중심가



덴마크의 동쪽 해안

## 덕스러운 여성으로 생활함

**여**러분의 방문 대상 자매들과 함께 다음 내용을 읽고, 질문, 성구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대해 토론한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누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하도록 권유한다.

잠언 31:10: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 단 제2보좌: “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고결한 도덕, 올바른 행동 및 생각, 좋은 인격, 여성의 순결이 이에 해당됩니다.” (“얼마나 천사에 가까운 존재입니까?”,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95쪽)

### 어떤 덕성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한가?

빌립보서 4: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모든 곳에 계신 여성분들에게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하라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설 것을 요청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단순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실 것입니다.”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 696쪽)

마가렛 디 네이돌드 본부 청녀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거친 여성들이 많으나 우리에게 친절한 여성이 필요하며, 세상에는 무례한 여성들이 많으나 우리에게 세련된 여성이 필요하며, 세상에는 부유하고 명성있는 여성들이 많으나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 여성이 필요하며, 세상에는 탐욕과 공허와 인기가 만연하지만 우리에게 선과 덕과 순수함이 더욱 필요합니다.” (“여성이 되는 기쁨”,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8~19쪽)

### 어떻게 이러한 덕성들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46:33: “너희는 끊임없이 덕을 쌓으며 내 앞에서 거룩한 행실을 해야 하느니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가 덕있는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유덕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실제의 생활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일삼기 쉬운 설교에 치중하는 것 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더 높은 단계에 있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끌어 올릴 수 없습니다. ... 가정은 덕이 싹트는 요람이며, 성품이 형성되고 습관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약에 맞섬”, 성도

의 벗, 1976년 2월호, 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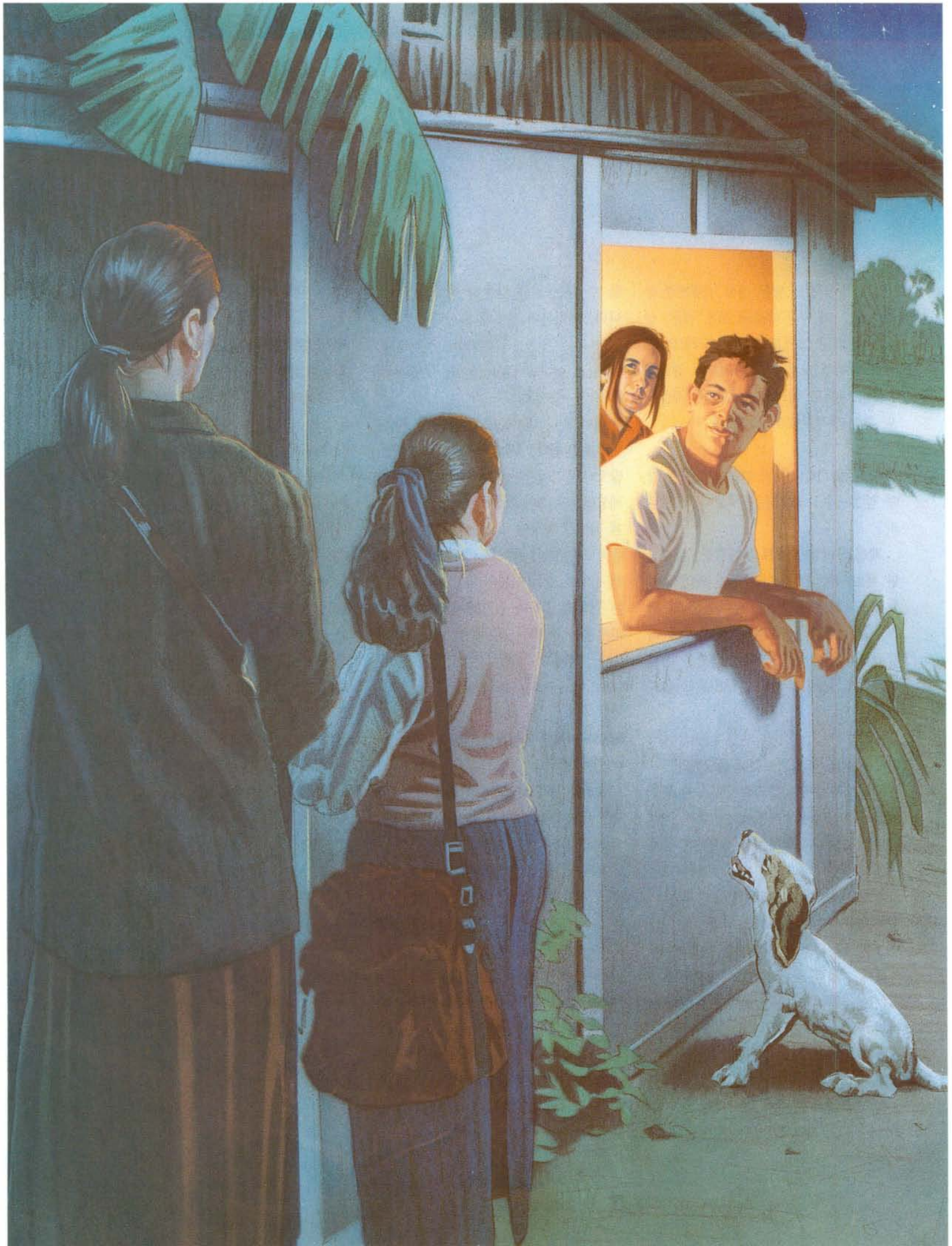
### 덕스러운 생활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약속된 축복은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121:45: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라”

교리와 성약 25:2: “만일 내가 충실하며 내 앞에서 덕 있는 길을 걸으면 나는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요, 너는 시온에서 상속을 받으리라.”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예언자 요셉은 ...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바의 특권을 따라 살게 된다면, 천사라 할지라도 여러분과의 사귀를 자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여러분의 심령을 가라앉히고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전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심어 주신 숭고한 직감에 순종하십시오.”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97쪽) □





# 나를 인도해 준 자전거 브레이크

레이브널 피 솔로몬

**19** 80년 10월에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문득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순간 자전거를 언제 또 어떻게 멈출 수 있을지 몰라 두려움에 휩싸였다. 숨가쁜 질주 끝에 무사히 멈추어 섰을 때, 그 자리에서 나는 친한 친구이자 고등학교 급우인 로디코 플로레스를 만났다. 나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한 후,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는 내게 자기 교회에 같이 갈 시간이 있는지를 물었다. 나는 그가 좋은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내가 알던 다른 말일성도들을 훌륭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일요일에 교회에 가기로 결정했다.

일요일에 나는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이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나와 악수를 나누고 나를 팔로 껴안으며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조금 수줍고 긴장되기도 했지만, 좋은 느낌이 들었다. 그 형제님은 나를 구도자를 위한 공과반으로 데리고 갔다.

공과 후에 두 젊은 여성이 전임 선교사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그들은 내게 집으로 찾아가도 좋은지 물었다. 나는 재빨리 바쁘다고 말하고는 여러 이유들을 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언제 시간을 낼 수 있는지를 알려 달라고 했으며, 나는 월요일 이른 아침이 괜찮다고 대답했다. 나는 새벽 4시에 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말했다. “솔로몬 형제님, 그때 뵙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집도 양어정 가운데 있고, 또 집에는 개들이 많다고 둘러댔다. 나는 그들이 그곳에 찾아오려면 꽤 고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다시 말했다. “솔로몬 형제님, 그때 뵙겠습니다.” 교회를 나선 후에 나는 그들이 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관해 까맣게 잊어버



**난 단지 그것이 고장난  
브레이크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많은 행복으로  
이끄는 여행의 진정한  
시작이었다.**

게 말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들은 내가 침례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나를 가르쳤다.

1980년 10월 31일에 침례를 받은 직후 한 친구가 나를 와드 파티에 초대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교회는 참 좋구나. 나를 위해 파티까지 준비한 모양이야.* 나중에야 내가 그 파티의 진짜 주인공이 아니었음을 나는 알았다. 그러나 그 파티에서 내 친구는 나를 한 청년에게 소개시켜 주며 그 청년에게 나를 잘 돌봐 주라고 말했다. 애니 오르티즈는 참으로 새로운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지금도 그녀는 여전히 나를 잘 보살펴 주고 있다. 우리는 1985년에 결혼했고, 필리핀 마닐라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침례를 받은 후로 나는 봉사하도록 주어진 여러 기회를 통해 복음 안에서 성장해 왔다. 1983년에 나는 필리핀 다바오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으며, 결혼 후 네 달 뒤에는 감독으로 부름 받았다. 나는 또한 스테이크장으로 그리고 선교부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했다. 내 아내와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녀로는 에즈라와 브리감 두 명이 있고, 또 봉사로 가득한 일생을 기대하고 있다.

나는 교회에서 잦은 행복과, 끈기 있게 인내했던 헌신적인 선교사들, 그리고 고장났으나 실제로는 나를 도와 현재의 내 길로 인도해 준 자전거 브레이크를 고맙게 생각한다. □

레이브널 피 솔로몬은 필리핀 다구판 스테이크, 다구판 제1와드의 회원이다.

# 삶이 고될지라도

때는 1962년으로 당시 나는 19살이었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존 비 디슨 장로

찰십인 정원회



암이? 그것도 내게? 나는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암에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생체 조직 검사와 유능한 전문가에 의한 면밀한 조사를

받은 끝에, 오른쪽 팔뚝에 생겨난 부종이 골육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뼈에 생겨나는 암의 일종으로 당시에는 환부를 절단한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사망하고 마는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치명적이라니! 나는 당시 19살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성전에서 결혼하고, 대가족을 갖고, 멋진 인생을 즐기겠다는 포부로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였고 또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이곳에 계속 머물게 하시든 또는 이생을 떠나게 하시든, 그 무엇이든 좋았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는 내 오른쪽팔을 잃은 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결과는 모험으로 가득 찬 인생 역정이었습니다. 뒤돌아 생각해 볼 때 오른쪽팔을 상실한 것이 비극적인 경험이었다기보다는 내게 가장 커다란 축복 가운데 하나였다고 나는 솔직하게 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건에서 너무도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 왔습니다.

적응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미국 북서부 지역의 삼림 지대에 있는 벌목 및 도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신체는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일을 오른손으로 했었는데, 참으로 많은 것을 의지했던 그 손을 정말로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예전에는 야구 팀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공을 멀리 던질 수 있었지만, 왼팔로는 짧은 거리밖에 공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글 쓰는 것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제 글씨체는 유년부 어린이들이 써도 그보다 나은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신발끈 매는 일, 셔츠 단추 끼는 일, 큰 물건을 옮기는 일, 운전, 면도, 그리기, 식사,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간헐적인 통증을 참은 일 등등 어려운 일 투성이었습니다.

익숙해져야 하고, 배워야 하며, 새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한 팔밖에 없다는 사실에 관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을 깨달았으며, 다른 일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실에 대한 내 태도는 전적으로 제게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기로에 있습니다. 내가 울고 싶다면 그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 상황과, 다른 모든 난관

들을 신앙과 긍정적인 태도로 극복하든지 결정을 내려야 함이 분명했습니다. 저의 행복과 영원한 안년이 저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결심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매우 활동적인 생활을 하며 지상의 경험을 통하여 성장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한 아들이로서 제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일단 결심이 서자 저의 자세는 확고했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1805~1844)는 리버티 감옥에서 쇠약해져 가는 가운데 많은 난관들과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가 매우 나쁜 가운데서도 광야에 있는 성도들과 자신의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며, 자신이 회복과 시온의 건설 과정에 관해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었는데 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게 해 달라고 그는 주님께 탄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수많은 난관들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내 이들과,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교리와 성약 122:7)

실제 생활 경험을 통해 배워 나가면서, 수술 후 며칠 뒤 제 침실에 혼자 서서 저

는 교회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손에 넥타이를 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옷기는 넥타이를 가지고 대체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것이지? 저는 어머니에게 도와 달라고 할까 생각도 했으나, 어머니가 저와 함께 선교 사업을 나가서 넥타이를 매 줄 수 없다는 것과, 다른 경우에도 저를 보살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곧 그 생각을 떨쳐 버렸습니다. 이젠 제 스스로 제 자신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넥타이를 매며, 비록 이빨을 조금 사용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 일을, 그것도 아주 잘 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제 마음속에 이해의 창이 열려서, 제가 인내와 신앙,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제가 직면할 거의 모든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임을 저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바로 이 신앙과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



각오,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가 인생의 여러 힘겨운 난관들을 겪는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신체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으나 우리 인간은 또한 다른 온갖 종류의 난관들을 겪습니다. 그러한 난관들은 재정,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교육을 받는 일, 내버려진 느낌,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또는 오해를 받는 일 등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겪는 난관들은 종종 지혜의 말씀, 부적절한 언어, 도덕적 순결, 부적절한 오락, 또는 인터넷 사용에 따른 유혹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네 가지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 1. 하나님 아버지를 아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및 구세주와 어떤 관계인지 분명하게 아십시오.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에 관한 간증은 영원한 운명을 이해하도록 돕고 또 인생의 여정에서 성공하겠다는 여러분의 각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해하게 된다면, 계명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지키는 이유가 우리 각자에게 아주 분명해집니다.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그러한 중요한 일에 대한 간증은 값없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매주 일요일마다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 간증은 커질 것입니다.

### 2. 지금 결정하십시오.

같은 또래들의 압력이나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지금 결정하십시오. 12살 때에 저는 지혜의 말씀을 항상 지키겠다고 개인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계명을 어기려 하는 권유가 있었지만 “아닙니다!”라는

저의 대답은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권유받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고 미리 결심을 하였기 때문에, 제 친구들에게서 받는 어떠한 압력에도 나쁜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결코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좋은 결정을 내린다면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파멸로 이끄는 권유나 유혹이 오기 전에 미리 마음을 정해 놓지 않는다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몇 배나 더 커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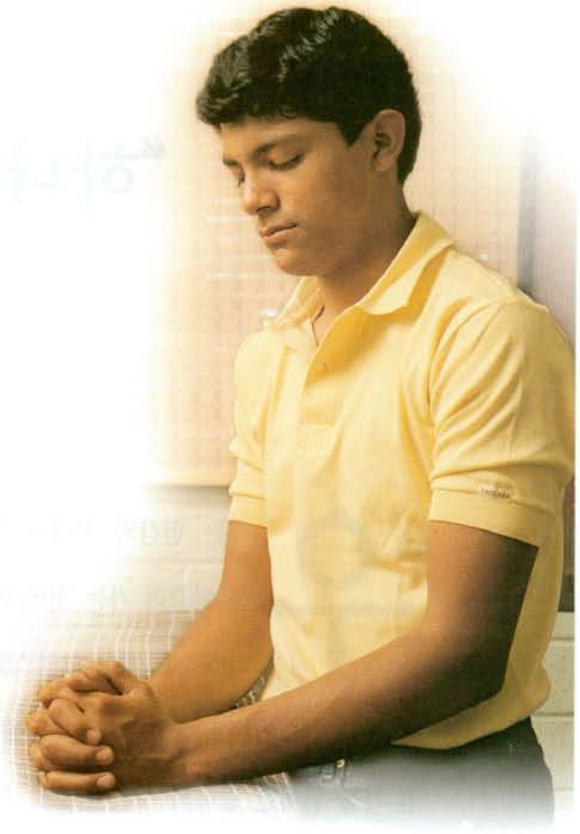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일부가 제가 제안하는 바대로 행하지 않아 이미 심각한 실수에 빠져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나 다른 사람 또는 두 사람만이 아마도 이러한 실수에 관해 알고 있을 것이나, 여전히 그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곤혹스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싶더라도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진지한 기도를 통해 주님께 말씀드리고, 감독이나 지부장에게 그 일을 설명하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이야기하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비난이나 당황스런 일을 예상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은 곧 사랑과 지지, 그리고 변할 수 있는 멋진 기회의 문을 찾게 될 것입니다.

### 3.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피임에 빠져, 그 길은 쉽고, 세상의 표준에 따라 살 수 있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책임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회개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니파이가 언급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중요한 존재이며,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동시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많은 자들이 이르기를 먹고 마시고 즐기 되,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은 죄를 조금 지으면 용서하시리니, 거짓말도 조금 하고 사람의 말을 트집 잡아 이익을 얻으며, 하나도 해될 일이 없으니 이웃을 빠뜨릴 함정을 파는 등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라. 우리는 내일 죽으리라. 우리에게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매로 몇 번 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리라.”(니파이서 28:8)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우리는 죄와 세상의 더러움을 꺼안은 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는 일에 전념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해야 하며, 자기 수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비 안에서 우리가 깨끗이 되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 4. 계명을 지키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성찬을 취할 때에는, 기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는 매우 특별한 약속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모로나이서 4:3) 하게 될 것입니다. 계명이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명이 우리를 구속하거나 제한할 목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계명은 다만 좀더 우리가 사랑하시는 아버지처럼 되도록 돕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충실한 아들과 딸들에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영원한 축복들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간절히 나누기를 원하시는 생활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피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권유하십니다.

수년 전에 덕슨 자매와 제가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 도착했을 때, 훈련원장께서는 봉사를 하면서 겪게 될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선교사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제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넥타이를 매 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제의를 받아들여 저의 말씀 원고를 수정하여 이 글에 언급된 내용의 일부를 포함시켰습니다.

말씀을 끝맺으면서 저는 넥타이를 매는 시험을 하기 위해 앞줄에 앉아 있는 네 명의 선교사에게 앞으로 나와 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왼손만을 사용해야 하느냐고 물었으나, 저는 두 손을 다 사용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듯이, 제가 이겼을 때 선교사들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누가 가장 넥타이를 빨리 매는가, 최고의 쿼터백은 누구인가, 치어리더는, 햄버거 먹기 챔피언은 누구인가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 말씀은 다만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중요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들을 아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듯,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의 많은 난관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흥미진진한 모험의 시간을 지내 오는 동안, 제 인생은 편안하고 순탄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개인적인 성장은 제가 닦친 인생의 난관을 잘 극복하고 제가 가야 할 길을 갈 때 항상 찾아왔습니다. 난관이 닦칠 때, 우리는 그것을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기보다는 우리의 전진을 위한 디딤돌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난관들은 계속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것들을 이겨 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 의해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인도되는 왕국, 곧 지상에 세워진 가장 위대한 왕국의 시민입니다. 이 왕국은 실재합니다. 그 운명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이번 호, 4쪽 참조)라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달 대관장단 메시지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일곱 가지 진리의 기본 원리들, 곧 세상의 믿음과 가치관이 흔들리더라도 변



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기본 원리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에 있습니다”입니다. 교회를 알게 되고 그곳에 있는 진리를 찾고자 진정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단순하고 기본적인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다음의 이야기들이 예시하고 있듯이, 이 진리의 기본 원리들은 변하지 않으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될 때 그들의 마음과 생활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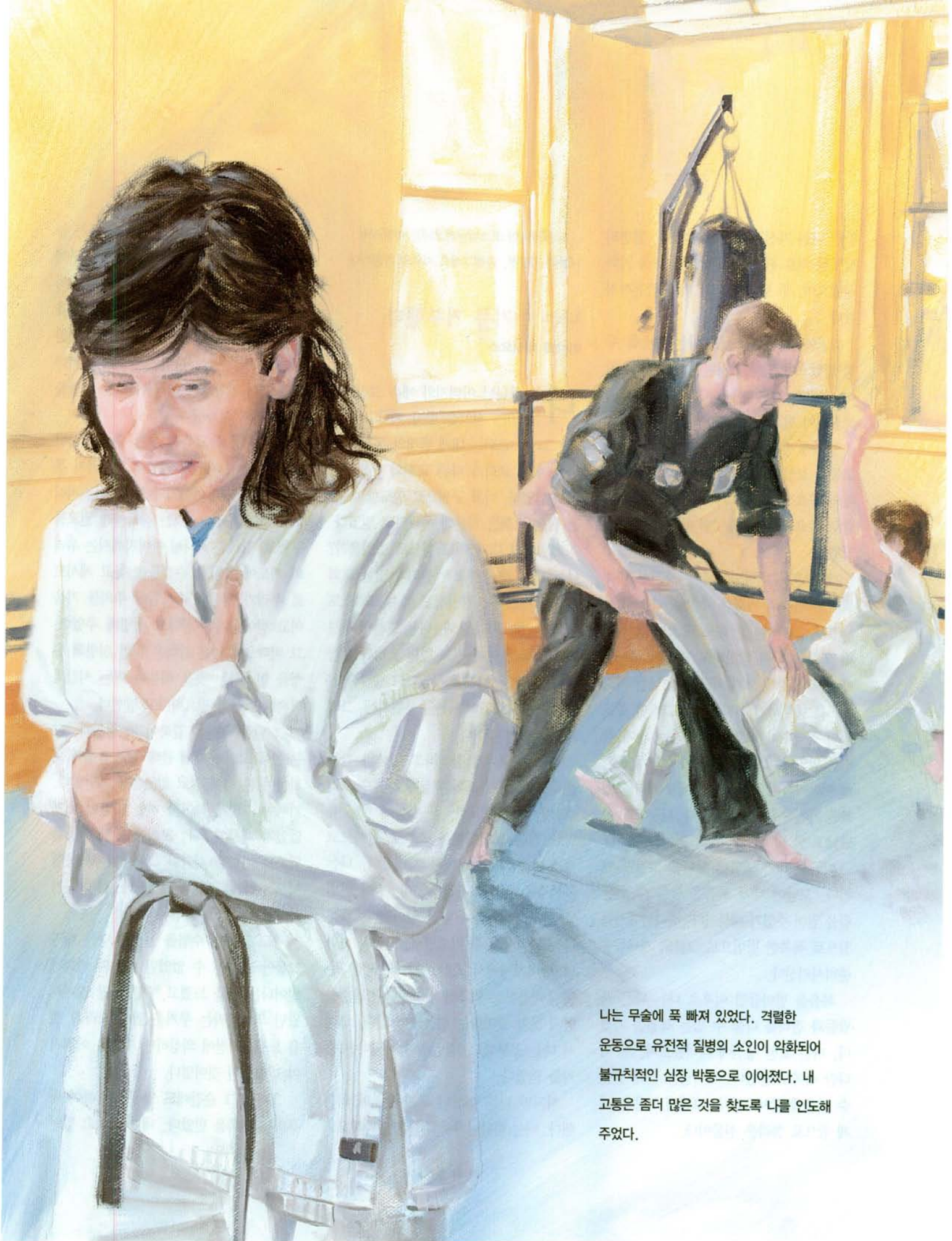
## 참으로 놀라운 선물

스테파니아 포스티글리오네

어떻게 해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가입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나는 침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친한 친구의 집에서 선교사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항상 들려주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첫 만남이 있기 전에 많은 일들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켜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활동적이고 열성적인 소녀였다.

내 생활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과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그 외 다른 어떤 것도 흥미를 별로 끌지 못했다. 나는 무술에 푹 빠져 있었다. 내 생활에는 오직 운동밖에 없었다. 그것이 내 생활 방식이었다. 실상 그것은 나의 종교였다. 나는 운동을 무척 잘 했으며, 많은 기술을 습득했다. 특히 남자들이 주로 하는 운동을 여자인 내가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욱더 인정

해 주었고, 내 자부심은 커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의 연습이 끝나고 나면 왠지 불안정한 느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종종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었고, 심장의 고동이 빨라졌다.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중압감 때문에 유전적 질병의 소인이 악화되어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나는 곧 알게 되었다. 고통이 커졌고, 어떤 때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별



나는 무술에 푹 빠져 있었다. 격렬한  
운동으로 유전적 질병의 소인이 악화되어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으로 이어졌다. 내  
고통은 좀더 많은 것을 찾도록 나를 인도해  
주었다.

안간 나는 자신감을 잃고 말았다. 일련의 잘못된 의료 판단이 내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두 번이나 심장 마비 직전까지 갔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는 수술을 두 번 받았으며 의사와 병원을 수도 없이 찾아 다녔다. 결국 나는 부모님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하게 되었다.

병원에 있으면서 나는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보았으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의 필요성을 배웠다. 나는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 영혼은 변화되었고, 누군가가 내게 또다른 인생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믿었던 하나님에 관해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나는 여러 종교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종교들의 공약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 그때 한 친구가 선교사에 관해 이야기하며 그들이 자기에게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주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을 만났고 한 달 뒤에 침례를 받았다.

지금은 내가 받았던 고난을 고맙게 여긴다. 고난이 내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독특한 방법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준비시키신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진리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나는 또한 성전에 다녀왔으며, 또 커다란 축복도 받았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그분의 복음은 내게 참으로 놀라운 선물이다.

스테파니아 포스터글리오네는 이탈리아 나폴리 지방부, 플레그레오 지부의 회원이다.

## 나는 듣기를 거부했다

이사벨 베리오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항상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는 내게 별개의 문제였다. 나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믿었다.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라고 믿었다.

그렇다면 내가 왜 회원으로 있었을까? 나는 내가 가진 종교적 원리와 맞는 교회를 찾고 있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간의 성경 공부를 통해 이미 믿고 있던 교리와 부합되는 “훌륭한 종교”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 지식만으로도 내게는 충분했기에,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 참석하고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이 교회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 곧 지상에 있는 유일한 참된 교회인지를 스스로 알아보고 싶은 소망이 내 안에서 자라났다. 나는 물론 성경을 읽기로 결정했는데, 전에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던 일이었다. 물론 나는 교회 잡지를 읽으면서, 신앙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는 증거를 받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연구하지 않는다면 간증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공부했고, 물론경이 참되다는 증거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교회에 관해 의심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하고도

분명한 확증, 내게 확실한 느낌을 주는 놀라운 어떤 것을 원했다. 나는 표적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여 내가 구했던 간증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확증을 구하면 구할수록 거역하는 느낌이 강해졌다. 당시에 나는 희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하루는 종교 교육원 수업 중에 교사가 나와 같이 자신의 간증에 확신하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비디오를 보여 주었다. 그는 감독에게 권고를 구했고, 감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 응답할 순간들을 찾고 계시므로 우리가 성신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 비디오에 나온 감독은 또한 성령의 음성을 인식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시간과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밑들이 마음 깊숙이 와 닿았다. 나는 문득 교회 문제에 관해 영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본 적이 결코 없었음을 깨달았다.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없었기 때문이었다. 교회에 대한 간증을 얻고자 기도를 시작한 그때부터 그 응답이 조용하게, 조금씩 왔었으나, 내가 듣기를 거부해 왔던 것이다.

종교 교육원 수업을 들으며 나는 내가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고, 9년 동안 짊어져 왔던 의심이라는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을 느꼈다. 전에 의심하던 것들을 이제서야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영에 대적하여 싸우려는 유혹을 받았다. 내가 느끼고 있던

비디오를 보면서 나는 문득 교회 문제에 관해 영의 음성에 전혀 귀기울여 본 적이 없었음을 깨달았다. 응답이 조용하게, 조금씩 왔었으나 내가 듣기를 거부해 왔던 것이다.

것은 그저 일시적인 감동이며, 필름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교실을 나설 때에도 그러한 싸움은 내면에서 계속되었다. 나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성령이 내게 더욱 분명하게 임했고 마침내 나를 의심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나는 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내려진 것이었다.

이제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이 말일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해 회복된 유일한 참된 교회임을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이 간증은 내게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 그분의 교회가 주는 보다 큰 빛과 지식을 받을 준비가 영적으로 되었음을 느끼고 있다.

*이샤벨 베리오스는 볼리비아 코비아 코차밤바 스테이크, 린데 와드의 회원이다.*

## 하나의 씨앗에서

렉스 유진 쿠퍼

**선**교 사업 기간 중에 가장 낙담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는 멕시코의 툀란신고에서 보낸 4개월이었다. 선교가 힘들었다. 매일마다 동반자와 나는 오랜 시간 거리 전도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두 남자를 찾았다. 이 두 사람이 작은 툀란신고 지부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흥분이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침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때 나는 크게 실망했다.

그 당시에 12살 된 소녀가 지부에 속한 한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툀란신고에 왔다. 그 소녀는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얼마 후 그 소녀의 아버지는 그 소녀가 침례를 받아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었다.

그러나 이 침례가 앞서의 두 남자에게서 느꼈던 실망을 감소시켜 주지는 못했다. 나는 그들이 이 지역에서 교회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 주기를 소망했다. 이 소녀는 너무 어렸고, 가족 가운데서 유일한 회원이었기 때문에 이 소녀가 활동적으로 남을 수 있을까 미심쩍었다. 소녀는 침례를 받은 후 곧 툀란신고를 떠났고, 그녀와의 연락이 끊어졌다. 사실 나는 그 소녀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선교 사업을 한 지 35년이 된 얼마 전에 나는 예기치 않았던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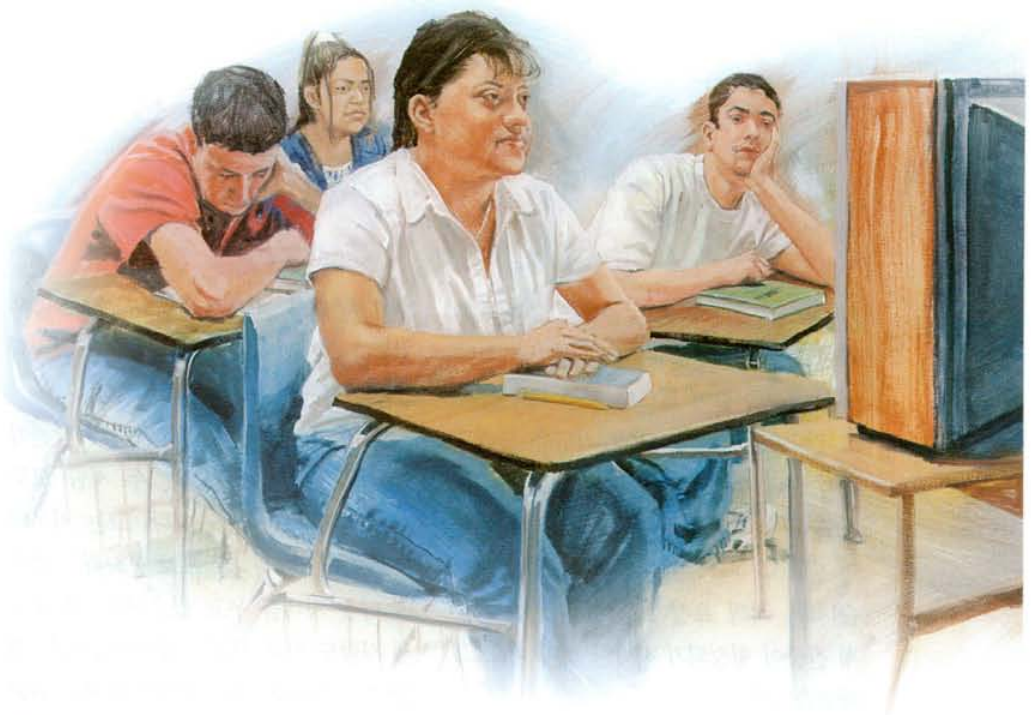
친애하는 쿠퍼 형제님께

제 이름은 제이 요비타 페레스 아코스 타입니다. 저는 1965년 12월 1일에 툀란신고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복음을 가져다준 형제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님께서 제게 복음을 가르칠 당시 저는 12살이었고, 그 해 여름을 툀란신고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듣던 그날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참되다고 느꼈으며, 그날 밤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형제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대화하는지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침례 받은 것에 대해 아버지께 화를 내셨으며, 그분들은 저를 천주교 기숙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 지역 어디에도 우리 교회 회원은 없었습니다. 제게는 물론경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고, 형제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 주신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의 종교적인 상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주님께 그분의 교회에 속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딸이 되도록 저를 도와 달라고 간구드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얼마 후에 멕시코시티에 있는 [말일성도] 교회 학교에 편지를 써서 등록을 시켜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제 간증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7년 후에 여동생 세 명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들 또한 교회 학교에 가서 생활했습니다. 여름에는 어머니께서 우리를 그분의 교회에 참석하게 하셨으나, 그런 동안에도 우리는 경전을 읽었으며, 가정의 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침례 받은 지 10년 만에 어머니와 막내 남동생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해에 아버지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족은 우리 마을뿐 아니라 인근의 모든 마을을 통틀어 최초의 가족 회원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집회소까지는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부모님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매 2주마다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몹시 아프게 되어서 몇 달간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자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매주 가정의 밤을 가졌습니다. 어머니는 주변의 이웃을 대부분 초대했고, 대략 30명 정도가 참석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선교부에 전화를 걸어서 선교사들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 지역 최초의 지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부장이셨고, 어머니는 상호부조회

장이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마을에도 많은 지부가 있으며, 두 개의 지방부가 조직되었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지금은 그녀의 남편이 된 사람을 개종시켰으며, 두 사람 모두 선교 사업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다섯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제 조카 세 사람도 선교 사업을 다녀왔습니다. 제 장남은 지난해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했으며, 제 딸은 현재 미국 워싱턴 시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 막내 아들은 다음달에 멕시코에서 선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부모님께서 교회 회원인 26명의 손자녀를 두고 계십니다. 형제님도 느끼시겠지만, 형제님께서 오래 전에 심은 작은 씨앗들 가운데 하나가 한 그루의 나무로 자라나 열매를 맺고 있으며, 새로운 나무들로 자라날 씨앗들을 심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제 장남이 선교 사업을 떠날 때 저는 그 아이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포도원에 사랑으로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찌면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을 그 아이가 전혀 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복음은 제게 크나큰 행복을 주었습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구속주이시며, 그분의 사업은 지상의 가족들을 축복하며 전진해 나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자매  
요비타 페레스

이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 당시 거의 중요하지 않게 보였던 어떤 일이 아마도 내가 선교 사업에서 성취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을 이제 실감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그들의 수고가 가져오는 모든 결과를 알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 미심쩍어 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한다면 복음을 나누는 일 자체에서 참된 기쁨을 찾게 될 것이다.

렉스 유진 쿠퍼는 유타 하이랜드 이스트 스테이크, 하이랜드 제4와드 회원이다.

## 내 친구 “밀크셰이크”

로버트 리 “로키” 크로크렐

**17**살이던 1958년 2월에 나는 미국 해군에 입대했다. 나는 항공 모함에 배속되어 그곳에서 유타 주 프로보 출신의 레이몬드 코빙튼을 만났다.

나는 레이몬드가 술과 담배, 저속한 말들을 전혀 안하는 것을 보고 조금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무엇을 즐겨 하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는 많은 일을 하지만, 주로 즐기는 것은 밀크셰이크를 큰 잔으로 한두 잔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거나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레이몬드에게는 “밀크셰이크”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밤에 레이몬드는 그의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해 내게 말하곤 했다. 내가 교회에 가입하게 되더라도 신권을 지닐 수는 없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진지한 관심을 기울였다. 내게 그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레이몬드는 언젠가 신권이 내게도 주어질 것이라는 그의 느낌을 전해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다른 친구들 보다도 레이몬드를 더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그가 생활하는 방식 때문이었다. 얼마 후 나는 내 자신이 그 동안 살아 왔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내가 저속한 말을 사용하거나 술을 마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의

로운 생활을 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여러 사람이 재판에 앉아 도박을 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레이몬드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밀크셰이크! 저속한 말 좀 써봐, 그럼 여기 있는 판돈을 모두 줄 테니 말이야.” 나는 재빨리 그 돈을 세어 보았다. 모두 합쳐서 두 달치 봉급 정도가 되었다. 나와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레이몬드가 내게 그 반을 떼어 주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저속한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그에게 간청해 보았으나 그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았다. 그때 나는 참된 말일

한 수병이 레이몬드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밀크셰이크! 저속한 말 좀 써봐, 그럼  
여기 있는 판돈을 모두 줄  
테니 말이야.”

성도가 된다는 것은 성스러운 책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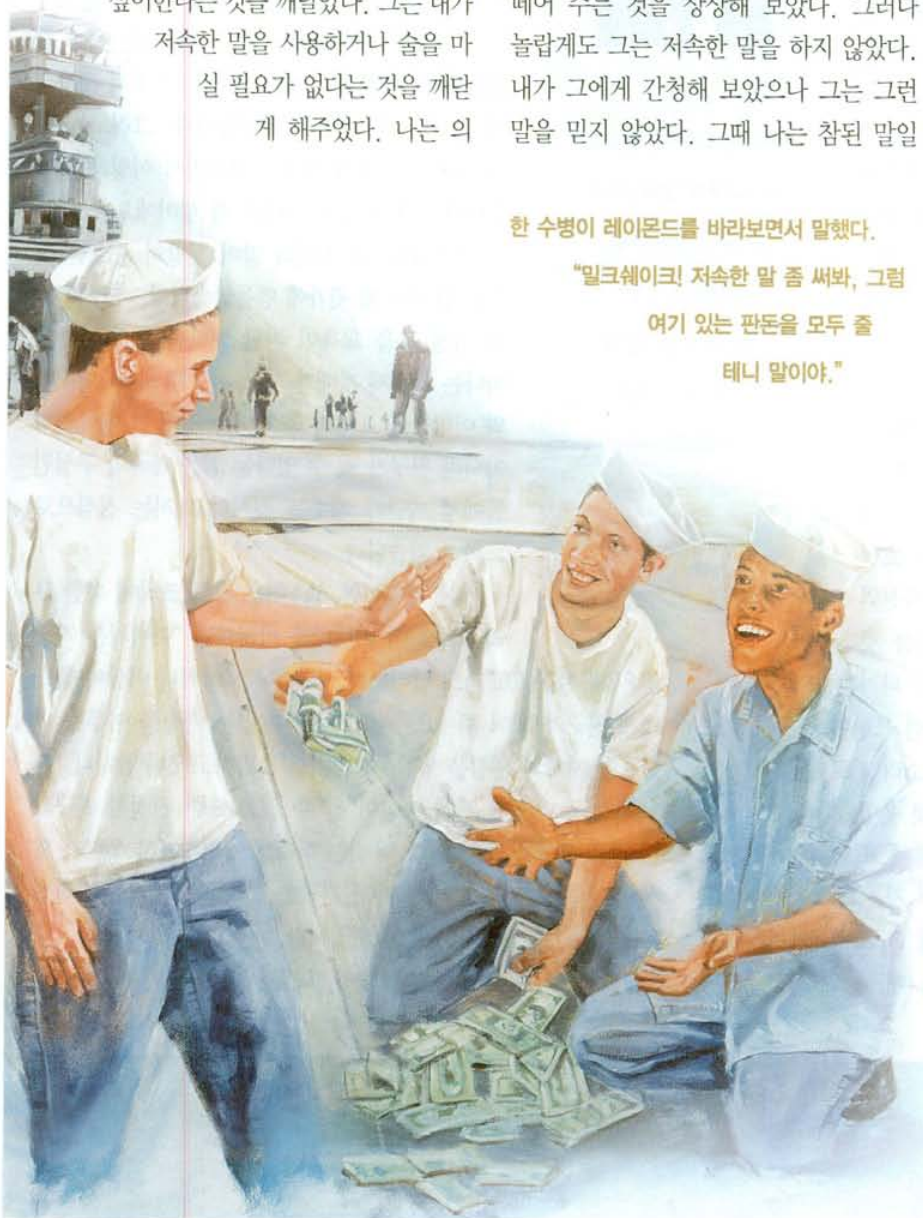
레이몬드는 1961년 6월에 제대했고 나는 그 해 말에 제대했다. 나는 종종 내 옛 친구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 궁금했다.

오랜 세월이 지난 1990년 어느 날, 미국 워싱턴 주에 있는 내 집에서 창 밖을 내다보다가 멋있게 옷을 입은 두 젊은이가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교회의 선교사였으며 나는 그들을 들어오라고 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내 나는 레이몬드의 소망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78년에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이 모든 합당한 형제들이 신권을 받을 수 있다는 계시를 받았던 것이다.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선교사 토론을 받은 후에 침례 받겠다고 동의했다.

이 즈음에 나는 교회 회원이었던 한 이웃에게 레이몬드와의 우정에 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 이웃이 유타 주로 가서 실제로 레이몬드를 찾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2주 후에 나의 옛 친구 “밀크셰이크”가 1,600 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차를 몰고 찾아와서 내 침례식에서 말씀을 했다. 그는 내가 교회에 오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1997년 12월에 나는 레이몬드의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내게 말해 주었다. 나는 그 소식에 슬퍼졌으나 이 로키와 친구 밀크셰이크의 재회가 언젠가 장막의 저편에서 있게 될 것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

로버트 리 “로키” 크록렐은 워싱턴 타코마 스테이크, 윌로렛 와드의 회원이다.



# 영원한 친구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1915~1994)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는  
1971년에서 1994년까지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했다. 그는  
1969년 10월 3일에  
십이사도 보조로  
지시되었으며  
그날 이 말씀을 했다.

어느 날 아내와 제가 앞 마당에 있을 때 신문 배달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자전거에는 신문이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약 20미터나 25미터쯤 뒤떨어진 곳에 또다른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잘 몰랐으며, 두 소년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신문 배달 소년이 우리 집으로 들어서는 옆길에 이르렀을 때, 그는 너무 빨리 달려온 탓에 우리 집 앞에서 제대로 정지하지 못하고 그만 넘어져 그의 몸은 이쪽으로 자전거는 저쪽으로 나뉘었고, 사방으로 신문이 쏟아졌습니다. 소년은 잔디밭에 넘어져 안 다쳤지만, 아마 자신의 친구 앞에서 넘어져서 분명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소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사하게 이루어진 완벽한 착륙 —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 을 보며, 뒤따르던 소년은 기뻐 소리 지르며 앞서던 소년의 불상사에 대해 너무도 좋아하며 실컷 웃었습니다.

신문 배달 소년을 난처함으로부터 구해 주고 싶었던 저는 그 소년이 도움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구겨진 자존심을 약간이라도 회복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년에게 몇 발자국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네가 넘어졌을 때 네 친구가 즐거워

하며 웃는 것은 일종의 반칙이지, 그렇지 않나?”

그 소년은 쳐다보지도 않고 신문들을 계속 주었습니다. 마침내 소년은 신문을 다 주워 제자리에 놓고는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집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 아니고 제 형이에요.”

그 이후로 그 소년의 말이 상당히 중요한 여운을 남기며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정의 밤과 가정 복음 교육이 지닌 커다란 목적 가운데 하나는 친형제 자매가 서로 친구가 되며,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저 부모가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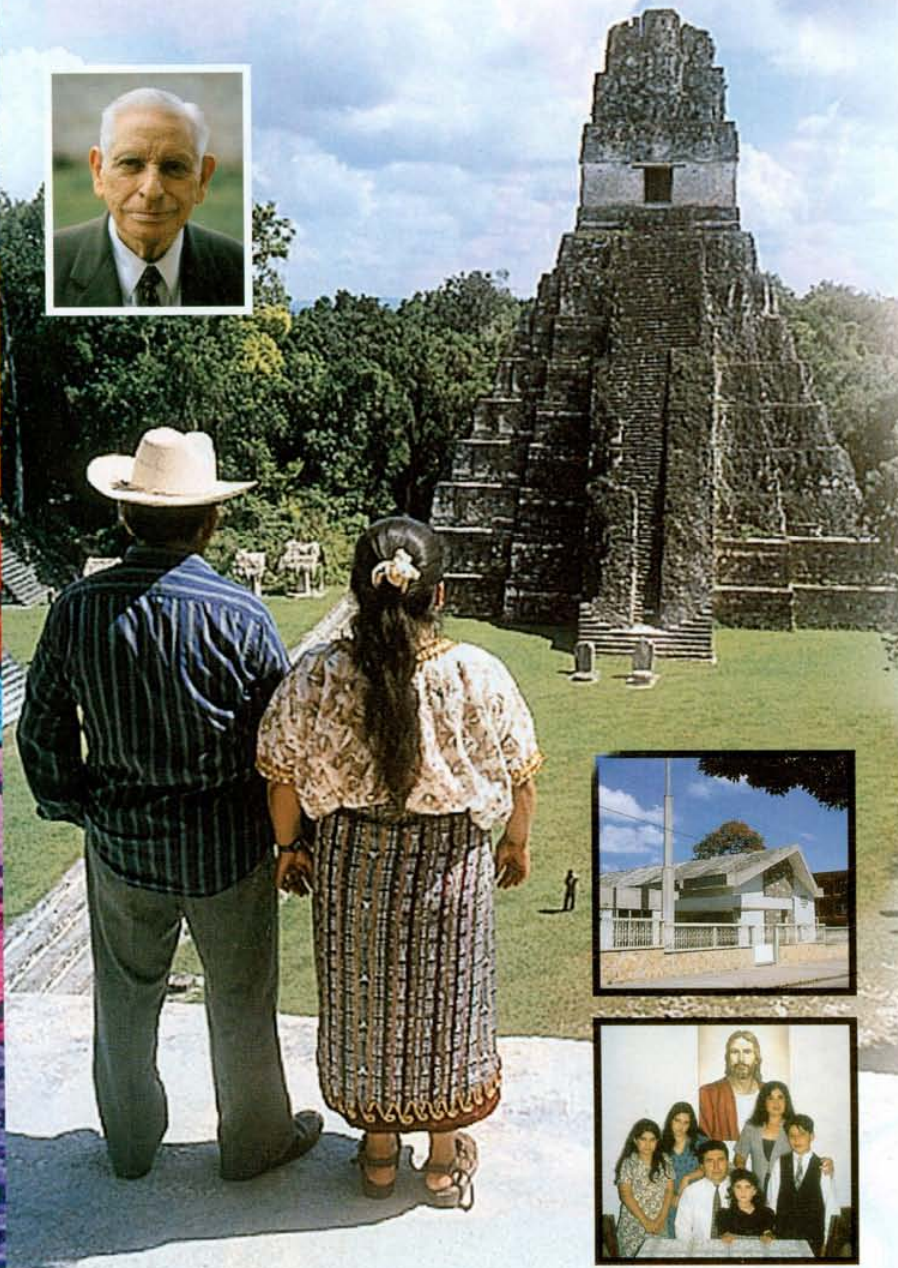
저는 가족이란 성스러운 단위 조직에 속한 우리 회원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는 가장

좋은 제 친구예요”라고 말하거나, “어머니는 어머니 이상이에요, 제게 친구가 되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혜와 영감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부모와 가족이 혈연 관계 이상이 될 수 있고 또한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뿐만 아니라 매우 가까운 친구로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어렵듯이 알게 될 것입니다. □

1969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인용함







복음의 뿌리가 고대 미대륙 상층의 땅인 이 곳에서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성장과 발전은 미래에 있을 더 큰 성장을 약속하고 있다.

돈 엘 설

**베**르타 로페스는 리아호나스페 언어에 실린 한 사진에 나온 청년들을 가리키면서 말한다. “여기 내가 있네.” 그녀는 당시 십대로서 1951년 그날 과테말라시에서 있었던 말일성도 소녀들을 위한 활동에 참석한 소수의 회원들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의 수는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그러나

왼쪽: 티칼에 있는 마야 유적지를 방문중인 과테말라의 한 부부. 위 원내: 과테말라 최초의 스테이크장이었던 우딘 팔라벨라. 중앙 원내: 과테말라시티의 몬투파르 예배당—교회가 중앙 아메리카에 세운 최초의 예배당. 아래 원내: 과테말라의 과테말라시티 아틀란티코 스테이크장인 페데리코 카스트로 가족.

# 과 테 말 라

## 미 래 를 위 해 건 설 함

과테말라의 교회에서 그것은 두 세대 전의 이야기일 뿐이다.

베르타는 창문을 통해 옆집을 바라본다. 그곳에서는 딸 하나 라미레스가 초등학교 용기반 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하나는 과테말라에 있는 20개의 스테이크 가운데 하나인 과테말라시티 스테이크의 과테말라 지부의 초등학교 회장이다. 지금 베르타는 과테말라에 있는 회원들이 50년 전에 꿈으로만 그려 볼 수 있었던 성장을 보고 있다.

수도의 또다른 지역에서는 젊은 리카르도 아얄라가 가족과 함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중계 방송되는 노변의 모임을 지켜보기 위해 스테이크 센터로 가고 있다. 이 모임은 그 나라 언어로 동시 통역된다.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팔미타 스테이크의 회원인 리카르도는 금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열 아홉 살이 되면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한다. 직장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는 일을 하여 돈을 저축해서 선교사 비용 전액을 부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로페스와 아얄라 가족과 같은 말일성도들로 인해 과테말라에서는 교회에 대

한 인식이 달라졌다. 한때 이곳에서 일반적이었던 교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믿는 이는 이제 별로 없다. 오늘날 많은 과테말라 사람들이 말일성도를 알고 있으며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고 있다. 이 나라 전체 인구에 대한 교회 회원의 비율(약 1.5 퍼센트)은 미국의 그 비율(약 1.8퍼센트)에 근접하고 있다. 과테말라시티에서 성전이 하나의 경제표가 되었듯이, 말일성도들은 그 사회에서 경제표가 되고 있다.

### 어려움을 극복함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1947년에 처음으로 과테말라에 들어온 때는, 그곳에 살고 있던 북미 출신의 존 에프 오도넬이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본부를 방문하여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테말라에 있다는 보고를 한 이후였다. 그의 아내 카르멘은 최초로 침례를 받은 과테말라인이었으며, 오도넬 형제는 후에 과테말라에서 선교부장과 성전장으로 봉사했다.

1952년에는 중앙 아메리카 선교부가 조직되었다. 1965년에 선교부가 분리되기 전까지 그 선교부는 여섯 개의 국가,

즉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리과 및 파나마를 담당했다. 현재는 과테말라에만 네 개의 선교부와 40개의 스테이크가 있다. 1989년에는 과테말라 태생의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장로가 칠십인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과테말라의 교회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과테말라 회원들에게 있어 가장 큰 난제 가운데 하나는 전통과 싸우는 것이라고 중앙 아메리카 지역의 전임 회장이었던 칠십인 정원회의 린지 로빈스 장로는 말한다. 과테말라에서 유력한 종교는 그 회원들을 모임이나 가르침 또는 지도하는 일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회원들이 교회 활동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오래된 회원들은 단순히 활동에서 점차 멀어져서 활동 촉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회장단의 권고에 따라 지역 신권 지도자들은 저활동 회원들을 방문하고 있으며, 선교사들이 토론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똑같은 결심 본보기를 사용한다. 그들은 “... 하시겠습니까?”라는 형태의 질문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이

러한 질문들이다. 교회에서 완전한 활동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감독이나 지부장을 방문하시겠습니까? 성전 추천서를 받고 성전에 가기 위해 그 분을 방문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

과테말라 잘라파 스테이크, 미네르바 와드의 밀튼 네오넬 리마 감독이 14명의 회원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시도했을 때, 10명이 그의 권유를 받아들여 그들의 생활에서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감독과 보좌들은 방문해야 할 다른 회원들을 즉시 파악하기 시작했다.

지역 회장단 역시 “더 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내보내는 일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로빈스 장로는 말한다. 2000년에는 선교사로 나가는 비율이 50퍼센트나 증가했다.

과테말라 사람들은 또한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실직 또는 불완전 고용이 25퍼센트나 된다. 교회의 지역 취업 알선 서비스 사무실은 사람들 특히 귀한 선교사들에게 취업 준비와 구직 또는 창업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교회는 또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도록 돕기 위해 저금리로 소액의 자본을 융자해주는 단체를 돕고 있다. 그리고 방학 기간 중에 일부 스테이크에서는 젊은이들을 위해 직업 기술 훈련반을 운영하기도 한다.

#### 변화를 겪는 문화

복음이 이 나라에 소개된 이후 수십 년 동안 과테말라 사람들의 생활은 크게 달

**오른쪽:** 레탈홀레우에 사는 아다와 네리 말로킨이 딸 블랑카와 함께 있다.

**뒤 배경:** 안티구아에 있는 안마당의 우물.

**왼내:** 과테말라의 과테말라시티 팔미타 스테이크의 루벤과 아이리스 아알라가 세 자녀, 루벤, 호세, 그리고 리카르도와 함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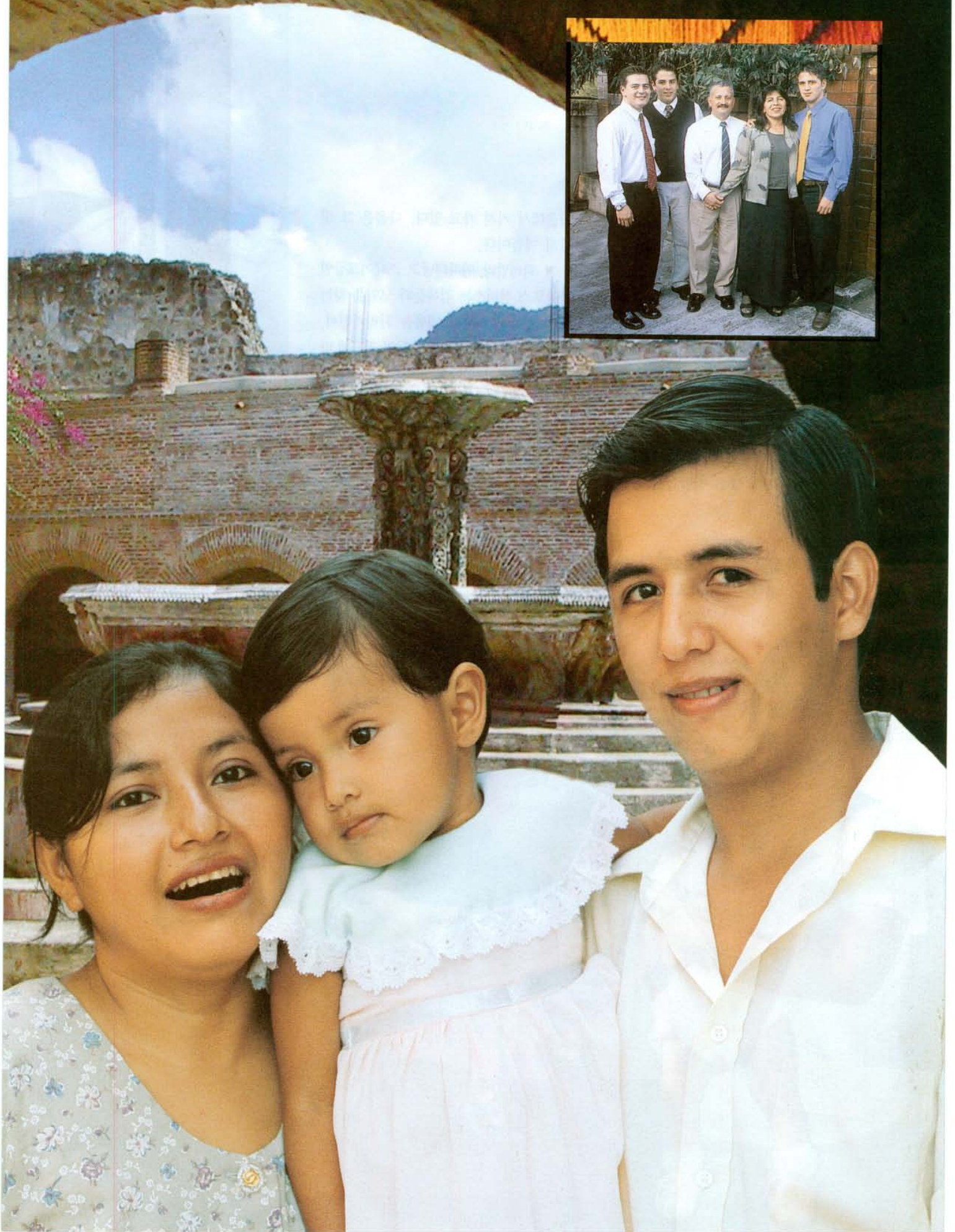
라졌다.

특히 마야의 후손들을 포함하여 과테말라 원주민들이 교회와 과테말라 사회의 주류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폴로칙과 다른 마야 주민의 중심지에서는 교회 모임이 종종 회원들의 토속 언어로 진행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스페인어를 할 수 있다. 한 세대 전인 196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많은 가족들 가운데서 오직 남자들만이 스페인어를 했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일부 선교사들이 마야어를 배워야 했다. 이제 이러한 일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과테말라에서 글을 아는 사람의 비율 또한 증가되었는데, 이는 많은 마야 회원들이 이제는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경전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경은 캐치어로 번역이 되어 있으며 물론경에서 발췌한 부분들이 그 나라의 주요 마야 언어인 키체어, 캅치켈어, 그리고 맘어로 번역되어 있다.

퀘잘테낭고에 거주하는 티모테오와 에바 보이는 마야의 후손들로 1970년대 중반에 교회에 들어왔다. 오늘날 보이 가족의 회원들은 그 지역에서 성공적인 기업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8명의





자녀와 그 배우자들 그리고 18명의 손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가족에서 네  
명의 감독, 네 명의 상호부조회 회장, 여  
섯 명의 초등회 회장, 네 명의 청년 회  
장, 다섯 명의 청년 회장, 그리고 일곱  
명의 선교사가 배출되었다. 그들은 지역  
의 애창곡인 "셀라주의 달"(셀라주란 퀘  
잘테낭고의 옛 이름)을 방문자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불러 주는, 마음이 따뜻한  
가족이다. 그들의 모범과 다른 사람에 대  
한 사랑은 또한 많은 사람들을 교회  
로 인도했다.

활기에 차 있고 살아 있는 신앙  
신앙은 과테말라의 성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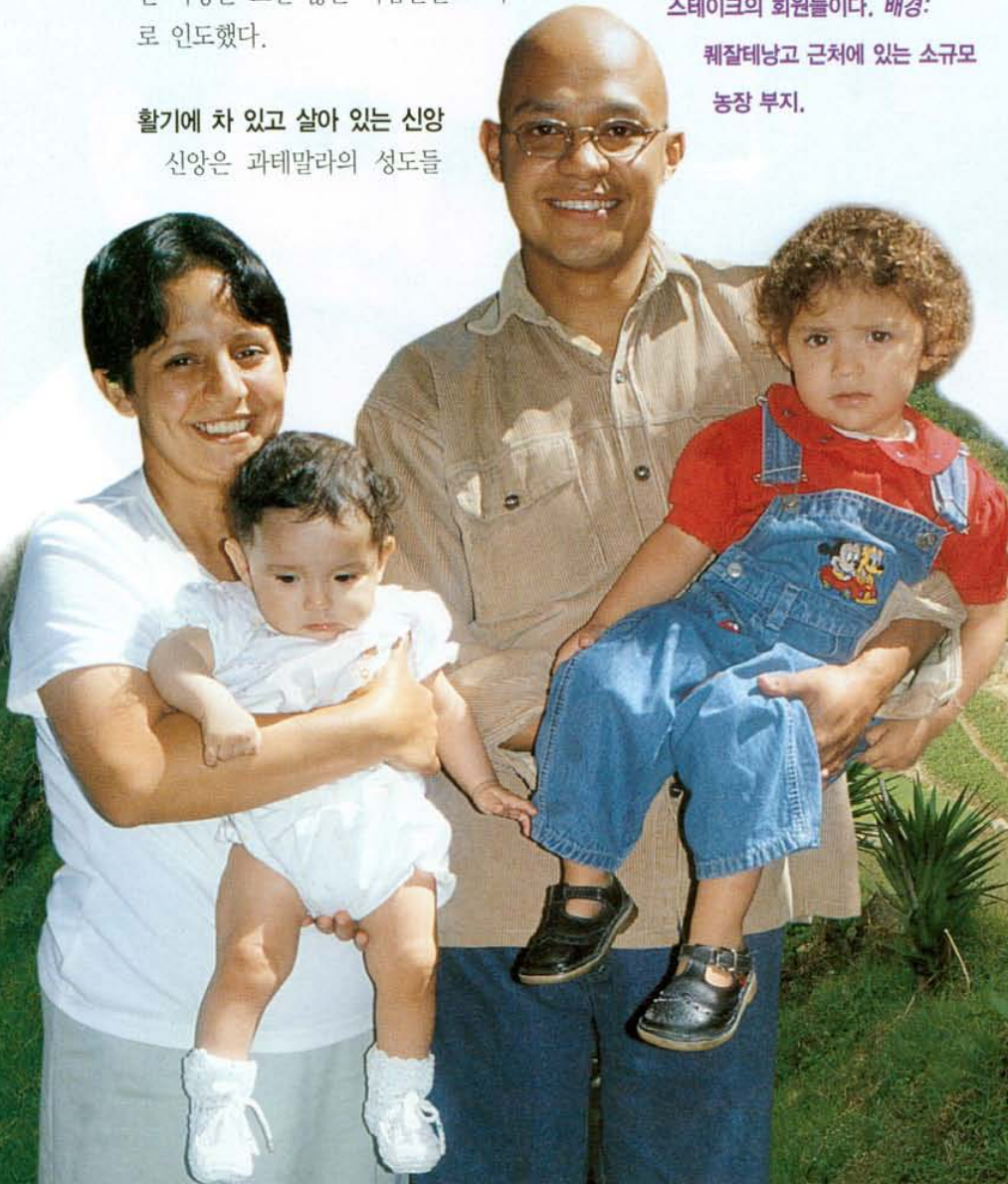
가운데서 커서 가고 있다. 나음은 그 몇  
가지 예들이다.

■ 과테말라 마자테낭고 스테이크장인  
카를로스 산티스는 감독들과 모임을 갖는  
동안 칠판에 기록된 내용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에 따  
라서 평의회 모임에서 만나 저활동 회원

암을 이겨 낸 헤토르 곤잘레스와 아내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딸들은 과테말라, 빌라누에바

스테이크의 회원들이다. 배경:

퀘잘테낭고 근처에 있는 소규모  
농장 부지.



## 교회 현황

국가 인구: 약 천 백 오십만

교회 회원 수: 179,000명 이상

스테이크 수: 40

선교부 수: 4

와드 및 지부 수: 453

교회 소유 집회소: 261

성전: 과테말라시티, 1984년에

헌납됨

선교사 훈련원: 과테말라시티

들의 필요 사항을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이 스테이크장단에서 봉사하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제겐 하나의 도전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제게 필요한 도전이며, 또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 과테말라 레탈홀레우 스테이크에 있는 한 와드의 감독단에서 보좌로 있는 네리 에루아르도 마로킨은 5년 전, 아내 아다의 영향을 통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복음주의파 기독교인이었다. 그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와 성경, 그리고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의 중요성을 배우며 자라났지만 무엇인가 더 있을 것이라고 느껴 왔다. 그는 자신과 아내가 영원한 가족을 갖게 해주는 복음 의식 안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요한복음 14:6]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은 그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과테말라에 성전이 있다는 것이 것처럼 큰 축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 과테말라 비야 누에바 스테이크의 헤토르 곤잘레스는 그의 다리를 절단하게 하고 거의 생명을 빼앗아 갈 뻔한 암과 싸울 힘을 복음이 주었다고 말한다. 한때 그는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를 의아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가 병원에 있는 그에게 축복사의 축복문을 가져왔고, 그는 자신이 장수하면서 봉사하게 되리라는 축복문의 약속을 통해서 희망을 찾았다.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될 것이 분명해졌

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는 영적 증거를 받았다. 수술 후에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것은 물몬경을 읽는 가운데 찾은, 믿기지 않는 도움이었습니다. 그것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었습니다.” 직장에서 지난 날을 회상하며 그는 말한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지켜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를 보살펴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 과테말라 퀘잘테낭고 스테이크의 회원인 호르헤 포파는 원래 아내에게 사준, 빵 만드는 기계의 영어 설명서를 아내가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자매 선교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자매 선교사들은 그 가족과 함께 복음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조건으로 그 초청에 동의했다. 선교사 토론을 마친 후에 호르헤와 그의 아내 미르나는 선교사들에게 침례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날 밤 호르헤와 미르나 두 사람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들은 각자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이 배운 것에 대해 기도를 드렸으며, 또한 각자 진리에 대해 같은 확신을 받았다. 그들은 일요일에 교회로 가서 자매 선교사들을 찾아 침례를 받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침례를 받은 후에 포파 부부는 많은 개종자들이 당면하는 문제, 즉 전통적인 종교를 저버린 것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문제에 당면했다.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네 살된 아들(현재는 집사)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누군가 차를 들여오자 그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다. “우린 그거 안 마셔요, 우

린 물몬이예요.”

### 미래를 위해 건설함

우딘 팔라벨라는 1967년 과테말라에 조직된 첫번째 스테이크의 스테이크장이었다. 1965년 과테말라시티의 지방부장으로 있을 때, 그는 버스로 그 지역을 출발하여 멕시코를 거쳐 미국 애리조나주 메사까지 가는 최초의 성전 여행을 계획했다. 1984년에 과테말라시티에 성전이 헌납되었을 때, 그것은 과테말라에 큰 축복이 되었다고 그는 말한다. 훗날 그가 성전장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축복이었으며, 그 직책에서 봉사한 지 4년 이상이 지난 2000년에 해임되었다.

그는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이 성전을 헌납하면서 그 나라에 평화가 있도록 축복한 것을 기억한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오랫동안 계속된 내전이 종식되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과테말라의 회원들이 집에서 먼 여행을 하지 않고도 성전의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팔라벨라 형제의 손녀인 에벨린이 2000년 12월에 성전에서 결혼했다. 많은 과테말라 젊은이들이 불행하거나 실패로 끝난 결혼 생활을 주변에서 보고는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믿음을 잃었으며,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우선 시간을 투자하고 결혼은 나중에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제가 인생에서 복음을 몰랐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결혼을 하는 영원한 이유와 그



것이 가져다주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당면할 때조차도 복음을 통해 평화를 느낄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한다.

팔라벨라 형제는 그가 살아오는 동안 과테말라의 교회에 찾아온 변화는 바로 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수천 명의 말일성도들이 복음의 모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호세 사조는 조국에 있는 복음 축복이 풍성하며, 또 그것들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의 세대가 가진 것이 많게 되었다는 점에 동의한다. 과테말라

최초의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호세는 지금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플로리다 스테이크장이다.

튼튼한 가족과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조 스테이크장은 말한다. 아내 클라우디아와 그는 모두 조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그들이 강한 가족과 건실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의 상당 부분이 선교 사업을 하면서 배운 두 가지 훌륭한 습관, 즉 사랑이 넘치는 동반자 관계를 자주 평가(결혼 생활 상황에 관한 대화)하고 또 정기적으로 복음을 공부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 사조 스테이크장은 이렇게 말한다. “제가 행복에 이르는 처방을 내린다면, 그것은 늘 함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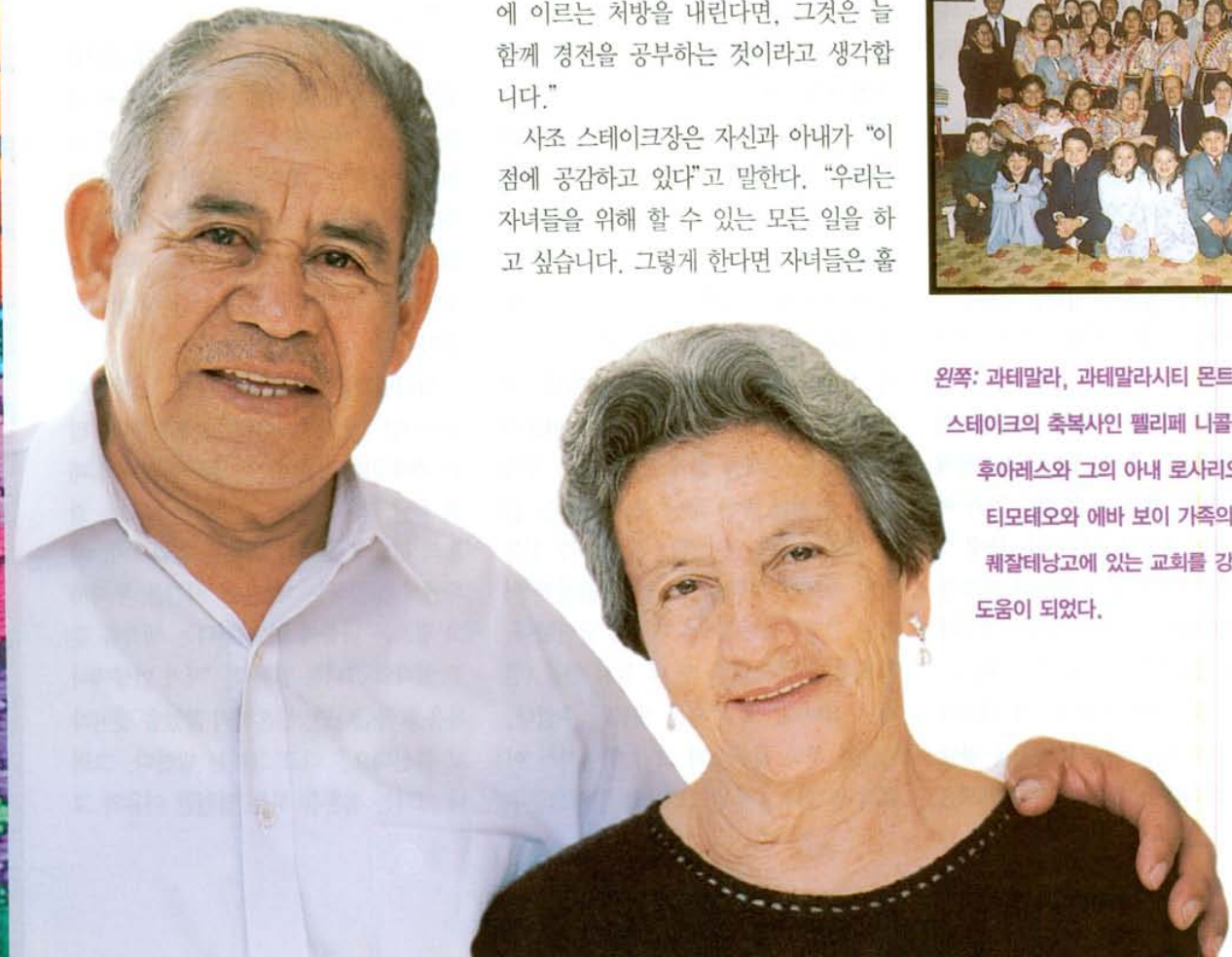
사조 스테이크장은 자신과 아내가 “이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녀들은 훌

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시키기 위해 그들을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약 반 세기 이전에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치더라도 복음 안에서 기꺼이 인내하겠다고 했던, 이 나라의 신앙이 강한 교회 회원들의 경우가 그러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영적 유산을 이어받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과테말라에서 교회의 미래는 주님의 부름에 주저 없이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손에 있게 될 것이다. □



왼쪽: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몬트세랫 스테이크의 축복사인 펠리페 니콜라스 후아레스와 그의 아내 로사리오. 위: 티모테오와 에바 보이 가족의 3대는 퀘잘테낭고에 있는 교회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알고 계십니까?

영국인인 존 웨슬리



## 명예를 걸고

칼 지 메이저는 1828년에 독일 색소니에서 태어났으며 조국에서 교회에 가입했다. 1860년에 메이저 박사는 가족과 함께 유타로 이주하여 브리감 영 가족의 가정 교사가 되었다. 16년 후에 영 대관장은 그를 브리감 영 대학교의 전신인 브리감 영 아카데미의 교장으로 불렀다.

메이저 형제가 이 새로운 임무를 맡아 떠나기 전에 영 대관장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철자법이나 구구단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 후 어려웠던 세월 동안 그 권고는 메이저 형제에게 지침이 되었다. (Edwin Butterworth Jr., “Eight Presidents: A Century at BYU,” *Ensign*, 1975년 10월호, 23쪽 참조)

칼 지 메이저는 지성과 교수법으로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겸손과 고결함으로도 잘 알려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감옥의 벽을 아주 큰 돌로 만들고, 그 벽을 땅속 깊이 묻어 만든 감옥 안에 저를 가두어 두십시오. 저는 그곳을 빠져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마룻바닥에 세워 놓고 분필로 제 주위에 선을 그은 뒤 명예를 걸고 결코 그것을 넘지 않겠다고 말하게 해 보십시오. 제가 그 원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rnest L. Wilkinson, *The President Speaks*,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1960년 10월 5일], 15쪽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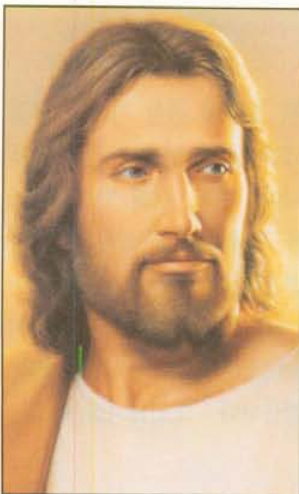
## 5월에 있었던 일

다음은 교회사에서 5월에 일어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다.

1829년 5월 15일.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사스케하나 강둑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아론 신권을 받았다.

1834년 5월 8일. 시온 진영이 미주리 주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오하이오 주에서 미주리 주로 향하는 행군을 시작했다.

1846년 5월 1일. 원래의 나부 성전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올슨 하이드 장로에 의해 공적으로 헌납되었다.



##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합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요한복음 17:6~11, 20~23절; 니파이삼서 11:28~30 참조) 말일의 계시에서 그분은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 (교리와 성약 38:27)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자신들과 정원회 또는 반원들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하여 단합을 이룰 수 있다.

- 정원회 회원들이나 반원들에 대해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 활동을 계획할 때 정원회 회원들이나 반원들을 참여시킨다. 그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것이며, 진행되는 활동에서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 구체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계획한다.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다. 정원회나 반원 가운데 어려움에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다음 활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는 데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 리아호나 2002년 5월호 활용하기

## 공과 제언

■ “진리의 기본 원리들”, 2쪽: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진리 일곱 가지에 대해 언급했다. 이 진리의 기본 원리들은 각각 항상 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지탱시키고 지지해 주는가?

■ “봉사하는 것을 배움”, 10쪽: 엘 톰 페리 장로는 우리는 봉사하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인가? 이러한 지식의 습득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봉사하도록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

■ “삶이 고될지라도”, 28쪽: 존 비 덕슨 장로는 열 아홉 살 때 오른팔을 잃었는데, 그것은 그의 삶에서 비극이 아니라 큰 축복이 되었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포기해야 했던 것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을 더욱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 그 희생에 대해 토론한다.

■ “배에 머물러 있어라”, 친2쪽: 러셀 엠 넬슨 장로는 호수 한 가운데에서 배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호숫가에 도착할 때까지 “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사진 삽화: 존 루크

## 이번 호의 주제들

· 가르침.....	25, 48
· 가정 복음 교육 .....	8
· 가정의 밤 .....	48, 친6, 친16
· 가족 관계 .....	2, 38, 친14
· 간증 .....	9, 32
· 개종 .....	20, 26, 32
· 견디어 냄 .....	28, 친2, 친14
· 경전 공부 .....	친16
· 교회사 .....	47
· 구약 성서 .....	친16
· 금식 .....	20
· 덕성 .....	25, 친4
· 모범 .....	20, 25, 32
· 방문 교육 .....	25
· 봉사 .....	10, 친9
· 선교 사업 .....	26, 32, 40
· 성전 및 성전 사업 .....	친4
· 순종 .....	2, 9
· 신약 성서 이야기 .....	친9, 친12
· 역경 .....	28
· 예수 그리스도 .....	10, 친2, 친9, 친12
· 용서 .....	친14
· 우정 .....	38
· 자제 .....	친6
· 전세계적인 교회 .....	20, 40
· 지도력 .....	47, 48
· 지식 .....	10
· 지혜의 말씀 .....	친4
· 진리 .....	2
· 초등학교 .....	친4
· 축복 .....	9
· 태도 .....	28
· 표준 .....	20

##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함

리아호나는 어린이들이 구세주처럼 되기 위해 노력한 경험에 관한 기사를 모집합니다. 기사 쓰는 일을 어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장 이상의 사진과 함께 성명, 나이, 주소, 전화 번호, 와드 및 스테이크(혹은 지부 및 지방부)를 적어 보내 주십시오. 기사는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Trying to Be like Jesus,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전자 우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CUR-Liahona-IMag@ldschur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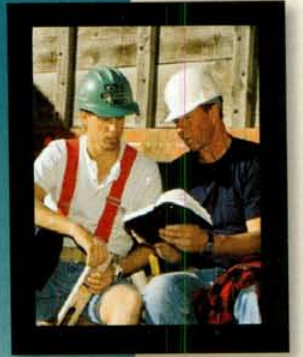




그림: 조지 소퍼, **바로**의 딸에 의해 갈대 상자에서 발견된 모세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 허락을 받아 게재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출애굽기 2:5~6)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베냐민 왕은 백성들에게 주는 권고에서  
 그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엘 톰 페리 장로, “봉사하는  
 것을 배움”, 10쪽 참조

